

WEBVTT

00:00:10.949 --> 00:00:12.887

우리 이번에는 18강
들어갈 차례고요.

00:00:12.987 --> 00:00:14.812

어문 규정 부분의
첫 번째 시간입니다.

00:00:14.912 --> 00:00:17.233

한글 맞춤법이 되겠죠.

00:00:17.333 --> 00:00:18.496

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.

00:00:18.596 --> 00:00:22.718

그런데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나와
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.

00:00:22.818 --> 00:00:28.037

그러니까 문제에
나왔을 때 보기가 주어지고

00:00:28.137 --> 00:00:30.498

이 어문 규정 중에서
일부가 실려 있습니다.

00:00:30.598 --> 00:00:36.048

그걸 빨리 적용해서 문제로 여러분이
이해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

00:00:36.148 --> 00:00:38.690

그래서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보고

00:00:38.790 --> 00:00:43.093

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경험을
해본 친구들이 확실히 좀 빠르거든요.

00:00:43.193 --> 00:00:45.190

그래서 그런 작업이라고
보시면 되겠어요.

00:00:45.290 --> 00:00:47.718

그래서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

00:00:47.818 --> 00:00:51.404

가볍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
가볍게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겠지만

00:00:51.504 --> 00:00:56.229

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멈춰놓고
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

00:00:56.329 --> 00:00:57.873

그런 거 좀 체크해주시면 좋겠어요.

00:00:57.973 --> 00:01:02.522

먼저 한글 맞춤법의 1장은
총칙이라고 되어있고요.

00:01:02.622 --> 00:01:05.307

그리고 1항에 소리
나는 대로 적어라.

00:01:05.407 --> 00:01:07.834

그리고 어법에 맞도록
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1:07.934 --> 00:01:10.759

이 두 가지, 이것과 관련되어서
문제가 많이 나왔어요.

00:01:10.859 --> 00:01:14.642

뭐냐면, 답지에 나와
있는 이 어휘 중에서

00:01:14.742 --> 00:01:19.995

소리대로 적었는지 어법에 맞는 대로
적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

00:01:20.095 --> 00:01:25.275

실제로 내가 그 단어를 발음할 때
소리가 나는 대로 적혀있으면 이쪽이고

00:01:25.375 --> 00:01:27.916

어법에 맞도록, 이걸 뭐냐.

00:01:28.016 --> 00:01:29.754

형태소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에요.

00:01:29.854 --> 00:01:36.713

그래서 만약에 내가 꽃이라고 하는
명사에 조사 이를 더했을 때

00:01:36.813 --> 00:01:39.945

이걸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고 하면
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

00:01:40.045 --> 00:01:42.840

이건 적기 방법을 이야기하는
거거든요, 우리 한글 맞춤법은.

00:01:42.940 --> 00:01:45.492

그래서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.

00:01:45.592 --> 00:01:48.290

그러면 우리는 실제로
이렇게 적어주기 때문에

00:01:48.390 --> 00:01:50.482

그렇다면 형태소를 지켜주면서

00:01:50.582 --> 00:01:54.376

실질과 형식 형태소를 유지해주면서
그렇게 적는 겁니다.

00:01:54.476 --> 00:01:58.075

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
적어주는 거를 기준으로 하지만

00:01:58.175 --> 00:02:01.388

만약에 그렇게 적었을 때
이게 무슨 글자야.

00:02:01.488 --> 00:02:03.208

꽃이라는 거야 먹는 꽃이야?

00:02:03.308 --> 00:02:06.087

헤맬 수 있으니까 그럴
때는 어법에 맞도록 해서

00:02:06.187 --> 00:02:11.761

우리는 음소주의 표기법하고 형태주의
표기법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.

00:02:11.861 --> 00:02:12.963

그다음에 2항입니다.

00:02:13.063 --> 00:02:15.566

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
쓰는 원칙으로 한다.

00:02:15.666 --> 00:02:19.561

그러면 여기서 각 단어라고 하는 건
품사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?

00:02:19.661 --> 00:02:24.386

그런데 유일하게 품사 중에 띄어
쓰지 않는 것은 바로 조사들이죠.

00:02:24.486 --> 00:02:27.076

이러한 '의', '는',
'을', '으로'.

00:02:27.176 --> 00:02:30.954

이런 것들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 단어와
띄어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.

00:02:31.054 --> 00:02:33.526

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
띄어 쓴다는 이야기죠?

00:02:33.626 --> 00:02:36.349

3항에 외래어는 '외래어
표기법'에 따라 적는다.

00:02:36.449 --> 00:02:39.943

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외래어
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

00:02:40.043 --> 00:02:44.348

거기 보면 외래어 표기법이
그때그때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.

00:02:44.448 --> 00:02:50.823

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
국립국어원에서 수시로 추가해줘요.

00:02:50.961 --> 00:02:51.893

외래어의 경우에는.

00:02:51.993 --> 00:02:59.052
왜 그러냐면, 인명 같은 것들이
계속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

00:02:59.152 --> 00:03:02.960
세계 어떤 인물이 이슈화되었는데
그 인물에 대한 이름을 적을 때

00:03:03.060 --> 00:03:07.489
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다르게
적으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?

00:03:07.589 --> 00:03:08.572
하면서 헛갈릴 수 있거든요.

00:03:08.672 --> 00:03:12.159
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
위해서 딱 정해줍니다.

00:03:12.259 --> 00:03:15.202
그런 것들은 수시로 등장하는
외래어라고 볼 수 있는데

00:03:15.302 --> 00:03:19.043
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을
외울 필요는 없잖아요.

00:03:19.143 --> 00:03:20.462
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고요.

00:03:20.562 --> 00:03:22.612
2장은 자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00:03:22.712 --> 00:03:24.144
우리가 잘 아는 내용.

00:03:24.244 --> 00:03:27.075
자모의 순서는 이렇게
나온다는 이야기인데

00:03:27.175 --> 00:03:28.608
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

00:03:28.708 --> 00:03:31.865
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
발음하니, 이거 뭐야?

00:03:31.965 --> 00:03:37.072
이러면 키역 이렇게 하는
친구들 좀 있고요.

00:03:37.172 --> 00:03:38.589
이건 티글이요, 이런
친구들 있어요.

00:03:38.689 --> 00:03:39.549
아니잖아요.

00:03:39.649 --> 00:03:41.711
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온 거야.

00:03:41.811 --> 00:03:42.927

이렇게 하면 안 되죠,
어떻게 해야 돼?

00:03:43.027 --> 00:03:45.287

키웁이라고 해줘야 되겠죠.

00:03:45.387 --> 00:03:46.146

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

00:03:46.246 --> 00:03:48.336

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

00:03:48.436 --> 00:03:52.879

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
자음을 발음하려고 했을 때

00:03:52.979 --> 00:03:59.578

이렇게 있으면 이,
그다음에 이런 형태잖아요.

00:03:59.678 --> 00:04:02.344

그래서 같은 자음을 여기다 집어
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04:02.444 --> 00:04:03.724

여기서 이 원칙을 지켜주는 거죠.

00:04:03.824 --> 00:04:05.851

키웁, 그다음에 티을.

00:04:05.951 --> 00:04:07.799

물론 헛갈리는 이유가 있죠.

00:04:07.899 --> 00:04:09.479

예외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.

00:04:09.579 --> 00:04:10.308

뭐였습니까?

00:04:10.408 --> 00:04:13.079

바로 여기에 있는 ㄱ(기억).

00:04:13.179 --> 00:04:14.907

기웁이라고 안 하고
기억이라고 하죠?

00:04:15.007 --> 00:04:17.940

또 애도 디읃이라고 안 하고
디귄이라고 한다는 거.

00:04:18.040 --> 00:04:21.611

그다음에 시읃이라고
안 하고 시읃이라고 한다는

00:04:21.711 --> 00:04:24.479

이 3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
다 이 기준에 맞춰서

00:04:24.579 --> 00:04:27.165

여러분이 표기를

해주셔야 되는 건데.

00:04:27.265 --> 00:04:30.805

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굳이
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?

00:04:30.905 --> 00:04:34.664

이러면서 그냥 똑같이 기록,
니은, 그다음에 디은, 지윳.

00:04:34.764 --> 00:04:35.385

이렇게 해요.

00:04:35.485 --> 00:04:38.028

그런데 우리는 이
관용을 지켜주는 건데

00:04:38.128 --> 00:04:40.403

이 관용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,

00:04:40.503 --> 00:04:45.493

아주 옛날 중세 시기에
처음에 이걸 만들어놓고

00:04:45.593 --> 00:04:47.924

그때부터 세종대왕이 이걸
기억이라는 글자야.

00:04:48.024 --> 00:04:49.256

이렇게 알려주진 않았거든요.

00:04:49.356 --> 00:04:52.812

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우리가
딱 정해놓은 건 아니었던 말이에요.

00:04:52.912 --> 00:04:58.096

그런데 좀 중중 시절에 최세진이라는
사람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만들면서

00:04:58.196 --> 00:05:00.835

애를 기억, 니은 이런
식으로 명칭을 잡아주는데

00:05:00.935 --> 00:05:03.983

한자를 빌려다가 명칭을
써주는 거예요.

00:05:04.083 --> 00:05:07.232

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 음에
해당하는 한자가 없어.

00:05:07.332 --> 00:05:09.696

또 음에 해당하는
한자가 없는 거야.

00:05:09.796 --> 00:05:13.610

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
역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주고

00:05:13.710 --> 00:05:17.878

그다음에 끝말자에 훈차를

이용해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.

00:05:17.978 --> 00:05:21.458
그래서 그때부터 관용이 잡혀서
이렇게까지 나온 거죠.

00:05:21.558 --> 00:05:23.821
그런데 사실 북한처럼
그냥 기옥, 디은.

00:05:23.921 --> 00:05:26.812
이렇게 해도 좋을 것
같은데, 아직까지는.

00:05:26.912 --> 00:05:28.692
그다음에는 ㅏ, ㅑ, ㅓ, ㅕ,
ㅗ, ㅛ, ㅜ, ㅠ, ㅡ, ㅣ.

00:05:28.792 --> 00:05:34.148
이렇게 해서 10가지의
단모음과 이중모음들도 있는데

00:05:34.248 --> 00:05:37.103
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?

00:05:37.203 --> 00:05:39.312
기억, 니은, 디글 이렇게 외워주고

00:05:39.412 --> 00:05:41.098
그다음에 모음의 경우는
기본 모음으로

00:05:41.198 --> 00:05:45.488
아, 야, 어, 여.
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.

00:05:45.588 --> 00:05:47.820
다음, 그런데 붙임 1이
이렇게 되어있어요.

00:05:47.920 --> 00:05:49.994
위에 자모로써 적을 수
없는 소리가 더 있거든요.

00:05:50.094 --> 00:05:52.618
지금 된소리도 그렇고
추가적인 모음들.

00:05:52.718 --> 00:05:56.228
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
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,

00:05:56.328 --> 00:05:58.479
그 순서와 이름은
다음과 같이 정한다.

00:05:58.579 --> 00:06:00.365
그러니까 기억을
두 번 어울려서 적고.

00:06:00.465 --> 00:06:04.861

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개 이상이라고
이야기했으니까 3개도 있나 봐.

00:06:04.961 --> 00:06:09.817

어떤 게 3개 자모를
이어서 붙인 걸까요?

00:06:09.917 --> 00:06:11.022

이놈들.

00:06:11.122 --> 00:06:13.407

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
됐다는 이야기입니까?

00:06:13.507 --> 00:06:17.769

ㄱ랑 ㄴ랑 거기다 ㄹ 까지 해서
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.

00:06:17.869 --> 00:06:20.697

그다음에 제의 경우는
ㄷ랑 ㄴ랑 ㄹ.

00:06:20.848 --> 00:06:23.437

이렇게 해서 제를
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.

00:06:23.537 --> 00:06:28.598

그래서 이런 놈들은 3개의 모음을
어울려서 적은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06:28.698 --> 00:06:36.590

다음, 우리가 챙겨봐야 될
건 붙임 2인 것 같아요.

00:06:36.690 --> 00:06:41.820

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
통해서 어떤 단어를 찾기 때문에

00:06:41.920 --> 00:06:46.056

실제 인쇄화되어있는 그
사전의 자모 순서에 대해서

00:06:46.156 --> 00:06:48.797

좀 익숙지 않은 경우가
많단 말이에요.

00:06:48.897 --> 00:06:52.981

그런데 제시를 해주고 사전의
배열 순서대로 적혀있는지를

00:06:53.123 --> 00:06:57.238

우리가 확인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이
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.

00:06:57.338 --> 00:06:59.849

일단은 ㄱ, ㄴ, ㄷ, ㄹ, ㅁ
이렇게 가다가

00:06:59.949 --> 00:07:02.255

우리가 사이사이에
된소리를 넣어준다는 거.

00:07:02.355 --> 00:07:06.274

이 자음에 기준은 여러분이
잘 알 겁니다, 맞죠?

00:07:06.374 --> 00:07:07.206

북한은 달라요, 또.

00:07:07.306 --> 00:07:09.984

북한의 경우에 된소리는
다 뒤로 보내요.

00:07:10.084 --> 00:07:11.199

그래서 쌍기역, 쌍디귤.

00:07:11.299 --> 00:07:13.865

이런 것들은 다 뒤로
보냅니다, 완전히 뒤로.

00:07:13.965 --> 00:07:17.139

이런 ㄱ, ㄴ, ㄷ 다 해서
ㅎ까지 나온 다음에 뒤로 보내고

00:07:17.239 --> 00:07:21.094

그다음에 초성이 ㅇ으로 시작하는 거는
음가가 없다고 해서 맨 뒤로 보내요.

00:07:21.194 --> 00:07:23.760

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가
우리랑 아예 다른데

00:07:23.860 --> 00:07:24.865

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.

00:07:24.965 --> 00:07:27.711

ㄱ, ㄴ, ㄷ 사이사이에
쌍기역, 쌍디귤.

00:07:27.811 --> 00:07:29.133

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.

00:07:29.233 --> 00:07:31.286

모음을 좀 잘 챙겨봐야 돼요.

00:07:31.386 --> 00:07:33.189

모음 우리가 아까
전에 처음 외울 때

00:07:33.289 --> 00:07:34.530

ㅏ, ㅑ, ㅓ, ㅕ, ㅗ,
ㅛ, ㅜ, ㅠ, ㅡ, ㅣ.

00:07:34.630 --> 00:07:35.454

이렇게 외웠잖아요.

00:07:35.554 --> 00:07:39.147

그러면 ㅏ, ㅑ, ㅓ,
ㅕ 이렇게 갈 텐데

00:07:39.247 --> 00:07:41.331

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?

00:07:41.431 --> 00:07:45.864
ㅏ에 어울려 적은 거, ㅑ에 어울려 적은 거, ㅓ에 어울려 적은 거.

00:07:45.964 --> 00:07:47.754
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끼주는 거거든요.

00:07:47.854 --> 00:07:49.774
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

00:07:49.874 --> 00:07:56.445
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사전 배열 순서대로 따져본다면 어떻게 갈까요?

00:07:56.545 --> 00:08:00.657
첫 번째 일단은 전부 다 ㅇ으로 가는 거니까 자음으로 인해서 구별은 안 됩니다.

00:08:00.757 --> 00:08:03.448
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모음을 따져봐야 되는데

00:08:03.548 --> 00:08:04.738
ㅏ 계열 먼저 찾아봐요.

00:08:04.838 --> 00:08:06.045
ㅏ, 없어요.

00:08:06.145 --> 00:08:08.854
ㅑ 계열 여기 있어요.

00:08:08.954 --> 00:08:13.123
애는 ㅑ에 ㅣ를 어울려 적은 거니까 애가 1순위가 되는 거죠?

00:08:13.223 --> 00:08:19.407
그다음에 ㅓ, ㅕ, ㅖ, ㅗ, ㅛ 했는데 ㅓ, ㅕ, ㅖ로 시작하는 게 나오잖아요.

00:08:19.507 --> 00:08:23.732
그러면 ㅓ 다음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ㅓ 계열의 외장창.

00:08:23.832 --> 00:08:27.230
그다음에 ㅑ에 ㅣ를 어울려 적은 거 왜가리 세 번째.

00:08:27.330 --> 00:08:31.724
그다음에 작대기 ㅣ, 맨 끝에 나와 있는 이놈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.

00:08:31.824 --> 00:08:34.534
그리고 ㅓ 계열로 출발하는 게 마지막.

00:08:34.634 --> 00:08:36.405
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을 수 있어야겠어요.

00:08:36.505 --> 00:08:42.143
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제시해줬을
때 사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

00:08:42.243 --> 00:08:45.507
어떤 단어들을 배열하는 건
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겠고요.

00:08:45.607 --> 00:08:50.248
그다음, 소리에 관한 것, 형태에
관한 것 이렇게 나눠주는데

00:08:50.348 --> 00:08:53.838
이 소리에 관한 것 먼저
1절, 된소리 부분입니다.

00:08:53.938 --> 00:08:57.206
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
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

00:08:57.306 --> 00:09:00.150
다음 음절의 첫소리를
된소리로 적겠다고 했어요.

00:09:00.250 --> 00:09:04.538
그런데 이게 단어라고 하면 우리가
품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

00:09:04.638 --> 00:09:06.511
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어.

00:09:06.611 --> 00:09:09.761
그래서 이 어문 규정에는 해설이
사실 다 실려있거든요.

00:09:09.861 --> 00:09:13.373
그런데 해설의 부분에 보면
여기서의 한 단어는 실질적으로는

00:09:13.473 --> 00:09:18.275
하나의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해줘요.

00:09:19.995 --> 00:09:24.192
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단어는 형태소
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09:24.292 --> 00:09:28.836
그러면 1번하고 2번 보세요.

00:09:28.936 --> 00:09:32.733
기준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
어떤 표기를 보아서.

00:09:32.833 --> 00:09:35.051
이 한글 맞춤법은 표기를
보는 거거든요.

00:09:35.151 --> 00:09:36.221
발음을 보는 게 아니야.

00:09:36.321 --> 00:09:40.063
그러니까 이 표기가 당연히 이렇게
써야지, 라는 생각이 들면

00:09:40.163 --> 00:09:42.982
내가 기준을 못 외워도 사실은
그걸 틀릴 리가 없어.

00:09:43.082 --> 00:09:45.713
결국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

00:09:45.813 --> 00:09:48.963
이 기준에 맞게끔 표기가 잘 되어있는
거, 잘 되어있지 않는 거.

00:09:49.063 --> 00:09:50.933
이거를 구분하는 작업을
하는 거 아니겠어요.

00:09:51.033 --> 00:09:53.522
그래서 지금 여러분이
여기 있는 어휘들 보시면

00:09:53.622 --> 00:09:56.795
굳이 1번이나 2번 조항을
유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.

00:09:56.895 --> 00:09:59.530
그런데 물론 나눌
수는 있어야 되겠죠.

00:09:59.630 --> 00:10:03.624
여기에 있는 빠 같은 경우는
쌍비음이 된소리 발음이 나오는 건데

00:10:03.724 --> 00:10:04.712
모음과 모음 사이.

00:10:04.812 --> 00:10:06.810
ㄱ하고 ㄴ 사이에
와있다는 이야기고.

00:10:06.910 --> 00:10:09.938
그다음에 이 살짝 같은
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00:10:10.038 --> 00:10:12.732
ㄹ 받침 뒤에 나오는
ㅈ하고 된소리 나왔다.

00:10:12.832 --> 00:10:14.190
그래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.

00:10:14.290 --> 00:10:16.767
적용하면 되는데 일단 어휘 자체는

00:10:16.867 --> 00:10:20.694
여러분이 애네들
된소리로 표기 안 하면

00:10:20.794 --> 00:10:26.812

소적새, 어깨, 오바, 으듬,
아기다, 이렇게 안 쓰잖아요.

00:10:26.912 --> 00:10:28.866
그러니까 표기 자체는 어색하지
않은 거라는 겁니다.

00:10:28.966 --> 00:10:31.149
그래서 이런 어휘들, 이런 어휘들.

00:10:31.284 --> 00:10:35.732
몽당, 몽땅. 훨씬 이렇게 안 쓰고
훨씬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?

00:10:35.832 --> 00:10:41.874
우리가 주목해보셔야
되는 건 이거예요.

00:10:41.974 --> 00:10:43.133
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.

00:10:43.233 --> 00:10:46.642
다만 'ㄱ, ㄴ' 받침
뒤에서 나는 된소리는

00:10:46.742 --> 00:10:49.572
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
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.

00:10:49.672 --> 00:10:53.301
이 이야기는 이따가 해보고,
이 조항이 따로 있으니까.

00:10:53.401 --> 00:10:54.803
어쨌든 이거로 볼게요.

00:10:54.903 --> 00:10:58.221
'ㄱ, ㄴ' 받침 뒤에서 나는
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.

00:10:58.321 --> 00:10:58.953
이 이야기입니다.

00:10:59.053 --> 00:11:00.015
여러분, 잘 보세요.

00:11:00.115 --> 00:11:03.321
애, 발음 된소리 발음
나오지 않습니까?

00:11:03.421 --> 00:11:04.852
소리에 관한 거니까.

00:11:04.952 --> 00:11:07.077
국쭈라고 된소리 발음 나오죠.

00:11:07.177 --> 00:11:09.680
다음에 깍뚜기라고 된소리 나오죠.

00:11:09.780 --> 00:11:11.821
그다음에 딱찌라고 된소리 나오죠.

00:11:11.921 --> 00:11:14.982

그다음에 색썬이라고 된소리
나오지 않습니까?

00:11:15.082 --> 00:11:15.935

법썬도 그렇고요.

00:11:16.035 --> 00:11:17.944

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.

00:11:18.044 --> 00:11:19.684

여러분, 이 법썬 있잖아요.

00:11:19.784 --> 00:11:24.658

이거 썬이라고 하지 말고
썬이라고 발음을 해보세요.

00:11:24.758 --> 00:11:28.619

그러니까 된소리 발음 내지
말고 한번 해보세요.

00:11:28.719 --> 00:11:30.099

됩니까?

00:11:30.199 --> 00:11:32.752

법썬, 되게 힘들지 않아요?

00:11:32.852 --> 00:11:34.366

물론 끊어서 발음하면 가능해.

00:11:34.466 --> 00:11:40.017

법썬, 이러면 가능한데 연달아 발음하면
된소리 발음을 안 하려고 해도

00:11:40.117 --> 00:11:41.510

된소리가 섞여 나와요.

00:11:41.610 --> 00:11:44.947

법썬, 안 하려고 하는데 나와요.

00:11:45.047 --> 00:11:45.864

다음요, 국썬.

00:11:45.964 --> 00:11:48.614

그다음 썬썬, 안 나올 수 없어요.

00:11:48.714 --> 00:11:52.229

그래서 'ㄱ, ㅂ'
받침 뒤에 나오는 것은

00:11:52.329 --> 00:11:55.065

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
무조건 나오거든요.

00:11:55.165 --> 00:11:57.095

이걸 필연적인
경음화 현상이라고 해요.

00:11:57.227 --> 00:12:02.634

그래서 표기에 있어서 굳이 된소리 표기를

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.

00:12:02.734 --> 00:12:07.597

이게 무슨 차이나, 앞서 나와
있는 이 예문들을 보시면

00:12:07.697 --> 00:12:09.261

된소리 발음 안 하려고 하잖아요?

00:12:09.361 --> 00:12:12.623

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.

00:12:12.723 --> 00:12:14.796

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
이런 걸 한번 보세요.

00:12:14.896 --> 00:12:16.789

가끔이 아니라 가끔.

00:12:16.889 --> 00:12:17.980

된소리 안 할 수 있거든요.

00:12:18.080 --> 00:12:19.402

몽땅이 아니라 몽당.

00:12:19.502 --> 00:12:22.795

그래서 실제로 가끔이라고
하는 단어도 있죠.

00:12:22.895 --> 00:12:24.546

가끔류 할 때 가끔.

00:12:24.646 --> 00:12:27.755

다음요, 몽당연필 할 때
몽당 있지 않습니까?

00:12:27.855 --> 00:12:29.054

몽땅 주세요, 몽땅.

00:12:29.154 --> 00:12:31.020

그러니까 된소리 표기되는 놈이랑

00:12:31.120 --> 00:12:33.276

안 되는 놈이랑 단어가 따로
나올 수 있는 거예요.

00:12:33.376 --> 00:12:35.491

그러나 애는 된소리 되는 단어랑

00:12:35.591 --> 00:12:38.316

된소리 안 되는 단어
두 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.

00:12:38.416 --> 00:12:41.709

왜? 둘 다 된소리 발음 나오는
거니까 헷갈린다고 보고

00:12:41.809 --> 00:12:46.011

그 뜻을 하나로만 잡아주는 거죠.

00:12:46.111 --> 00:12:50.520

그래서 딱짜라는 단어가 없고 색씨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.

00:12:50.620 --> 00:12:52.423

어차피 애네들은 된소리
발음 나오니까.

00:12:52.523 --> 00:12:54.944

우리가 여기에서 신경 써야
되는 건 바로 뭐다?

00:12:55.044 --> 00:12:59.906

'ㄱ, ㅂ' 받침 뒤에 나오는
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.

00:13:00.006 --> 00:13:01.600

그러면 다시 적용해봅시다.

00:13:01.700 --> 00:13:05.072

나는 달콤한 냄새가 물씬,
된소리 발음 나와요.

00:13:05.172 --> 00:13:09.855

그런데 ㄱ이나 ㅂ 받침 뒤가
아니라면 애는 뭐로 적어주겠다?

00:13:09.955 --> 00:13:12.832

소리나는 대로 물씬이라고
적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.

00:13:12.932 --> 00:13:16.893

그런데 밑에 복숭아를 덩석
잡았다, 덩씩 잡았다.

00:13:16.993 --> 00:13:20.843

된소리 발음은 나오지만, ㅂ
뒤나 ㄱ 뒤이기 때문에

00:13:20.943 --> 00:13:23.702

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
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.

00:13:23.802 --> 00:13:25.760

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에요.

00:13:25.860 --> 00:13:31.627

이런 예를 주고 실제로 뭐가
맞느냐, 라고 여러분이 한다면

00:13:31.727 --> 00:13:33.712

적용하면 되는 거예요.

00:13:33.812 --> 00:13:34.871

외우는 건 아니예요.

00:13:34.971 --> 00:13:37.128

그런데 이걸 한번 본 친구들과하고

00:13:37.228 --> 00:13:39.993

그냥 시험 현장에서 본 친구들과하고는
적응력은 분명 차이가 나.

00:13:40.093 --> 00:13:43.049

그래서 한번 이렇게
정돈하는 작업은 필요해요.

00:13:43.149 --> 00:13:46.298

그다음 구개음화 작업입니다.

00:13:46.398 --> 00:13:50.141

여기서부터 좀 쉬운데, 소리로
구개음화 현상이 난다는 건

00:13:50.241 --> 00:13:51.805

이미 음운변동에서 공부했어요.

00:13:51.905 --> 00:13:55.485

그래서 우리가 'ㄷ, ㅌ'
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

00:13:55.585 --> 00:13:56.386

'-이(-)'나 '-히-'.

00:13:56.486 --> 00:13:58.362

말이 너무 어려워요, 선생님.

00:13:58.462 --> 00:13:59.243

안 어려워요, 여러분.

00:13:59.343 --> 00:14:01.268

여기서는 종속적 관계라는 이야기는

00:14:01.368 --> 00:14:03.969

앞엿것에 의존할 수밖에
없다는 이야기예요.

00:14:04.069 --> 00:14:06.445

의존할 수밖에 없는 '-이(-)'나
'-히-'라는 이야기인데

00:14:06.545 --> 00:14:09.707

한번 구분해볼까요?

00:14:09.807 --> 00:14:12.573

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놈이 있고.

00:14:12.673 --> 00:14:16.125

일단 이렇게 해놨잖아요?

00:14:16.225 --> 00:14:19.122

그 이야기는 뒤의 놈은 붙을 수도 있고
안 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

00:14:19.222 --> 00:14:22.099

그러면 첫 번째, 만약에
이렇게 붙는 놈이나

00:14:22.199 --> 00:14:28.401

그다음에 이렇게 붙는 놈이 있다면 애
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해당합니까?

00:14:28.501 --> 00:14:30.622

기본적으로 조사죠.

00:14:30.722 --> 00:14:32.606

주격조사나 보격조사, 조사.

00:14:32.706 --> 00:14:35.040

애네들은 의존일 수밖에 없어요.

00:14:35.140 --> 00:14:37.417

앞에 있는 어근에 딱
붙어있어야 되는 거니까.

00:14:37.517 --> 00:14:39.274

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?

00:14:39.374 --> 00:14:42.003

명사화 접미사나 부사화
접미사가 있겠죠.

00:14:42.103 --> 00:14:46.874

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,
부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.

00:14:55.203 --> 00:14:57.968

용어 그새 다 까먹은 거 아니죠?

00:14:58.068 --> 00:15:01.510

예를 들면 먹이, 라고 한다면
먹에다 ㅣ 를 붙이는 거죠?

00:15:01.610 --> 00:15:04.890

그다음에 높이 날았다, 할
때 높+ ㅣ 를 붙이는 거죠.

00:15:04.990 --> 00:15:06.713

그런 놈들은 종속적 기능을 가져요.

00:15:06.813 --> 00:15:11.485

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끼어야
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

00:15:15.852 --> 00:15:19.252

사동이나 피동 만들어줄 때
이히리기, 이히리기우구추.

00:15:19.352 --> 00:15:21.563

이런 것들, 그때 이
'-이-'가 나올 수 있잖아요.

00:15:21.663 --> 00:15:26.324

그래서 이것도 앞에 의존할 수밖에
없는 종속적 관계가 되는 거죠.

00:15:26.424 --> 00:15:28.546

그다음에 나와 있는 -히-가 있다면

00:15:28.646 --> 00:15:31.482

애 역시 사동이나 피동
접미사로 쓰이는 겁니다.

00:15:31.582 --> 00:15:33.256

그래서 그런 놈들 이야기하는 거죠.

00:15:33.356 --> 00:15:35.764
그런데 이런 놈이 왔을 때 아시지만

00:15:35.864 --> 00:15:39.781
'ㄷ, ㅌ'이 'ㅈ,
ㅊ'으로 발음이 변하잖아요.

00:15:39.881 --> 00:15:41.559
표기는 그렇게 하지
말라는 이야기에요.

00:15:41.659 --> 00:15:43.745
ㄱ이 맞고 ㄴ이 틀립니다.

00:15:43.845 --> 00:15:46.465
그래서 ㄱ을 취하고 ㄴ을
버린다고 되어있는데

00:15:46.565 --> 00:15:50.213
여러분, 이걸 지금 오타.

00:15:50.313 --> 00:15:52.442
아마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
써 있으면 안 되죠.

00:15:52.542 --> 00:15:55.375
해도지라고 적혀있어야
돼, 잘못된 거니까.

00:15:55.475 --> 00:15:57.534
애가 맞고 그다음에 ㄴ이 틀려.

00:15:57.634 --> 00:16:00.911
그다음에 애가 맞고
ㄴ이 지금 틀려요.

00:16:01.011 --> 00:16:03.193
그러니까 여러분이
이거 쓸 때 소리는

00:16:03.293 --> 00:16:06.715
마지, 해도지, 구지,
가치, ㄱ치라고 나지만.

00:16:06.815 --> 00:16:08.725
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만

00:16:08.825 --> 00:16:13.513
실질적 표기는 이렇게 형태를
유지해준다는 조항이에요.

00:16:17.612 --> 00:16:19.916
누가 문자를 보냈어.

00:16:20.016 --> 00:16:21.841
너 구지 그랬어야만 하니?

00:16:21.941 --> 00:16:24.571
그러면 정이 떨어져.

00:16:24.671 --> 00:16:25.570
만나고 싶지 않아.

00:16:25.670 --> 00:16:30.508
우리 가치 눌러 갈까?
이렇게 하면 안 눌러 가고 싶어.

00:16:30.608 --> 00:16:36.102
이 맞춤법이라는 게 너무
극단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

00:16:36.202 --> 00:16:38.869
그런 압박감 속에
살고 있으면 피곤해.

00:16:38.969 --> 00:16:39.942
선생님도 피곤해.

00:16:40.042 --> 00:16:43.450
그래서 누가 선생님한테
이렇게 편지를 쓴다든지

00:16:43.550 --> 00:16:46.163
아니면 문자를 보낼 때
굉장히 신경 쓰인대요.

00:16:46.292 --> 00:16:47.575
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.

00:16:47.675 --> 00:16:51.166
그런데 제가 야, 너
맞춤법 틀렸다.

00:16:51.266 --> 00:16:51.774
보이거든요.

00:16:51.874 --> 00:16:52.950
그런데 너 맞춤법 틀렸다,

00:16:53.050 --> 00:16:55.164
그렇게 쓰면 안 돼, 라고
이렇게 지적질 하겠습니까?

00:16:55.264 --> 00:16:56.859
안 해요.

00:16:56.983 --> 00:17:00.794
물론 선생님이 문자를 보낼
때 띄어쓰기는 해요.

00:17:00.894 --> 00:17:02.655
띄어쓰기에는 신경을 씁니다.

00:17:02.755 --> 00:17:05.262
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
띄어쓰기도 못 하나?

00:17:05.362 --> 00:17:08.455
이런 이야기를 듣긴 싫기
때문에 경제적이게 하려면

00:17:08.555 --> 00:17:10.046

사실 띄어쓰기 안 하는
게 제일 좋거든요.

00:17:10.146 --> 00:17:11.908

그런데 저는 띄어쓰기 다 합니다.

00:17:12.008 --> 00:17:13.192

맞춤법도 신경 써요.

00:17:13.292 --> 00:17:17.412

그러나 남들이 그걸 봤을 때 일일이
지적하고 그러진 않아요.

00:17:17.512 --> 00:17:20.903

저도 피곤하니까.

00:17:21.003 --> 00:17:23.176

그러나 이런 건 심하잖아.

00:17:23.276 --> 00:17:26.325

우리 가치 놀러 갈까?
이런 부분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.

00:17:26.425 --> 00:17:30.807

최소한의 교양 정도는 알고
있어야 되는 거니까.

00:17:30.907 --> 00:17:33.178

다음 7항 부분 볼게요.

00:17:33.278 --> 00:17:36.083

'ㄷ' 소리 받침인데 'ㄷ'
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

00:17:36.183 --> 00:17:39.109

'ㄷ'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
것은 'ㅅ'으로 적는다.

00:17:39.209 --> 00:17:41.696

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예들이
이렇게 나와 있어요.

00:17:41.796 --> 00:17:44.310

여러분, 여기 어휘들
중에서 혹시 내가

00:17:44.410 --> 00:17:47.399

ㅅ 받침 자리에 ㄷ으로 적으면

00:17:47.499 --> 00:17:51.389

헛갈릴지도 몰라 싶은 단어가 있으면
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

00:17:51.489 --> 00:17:53.254

없을 거라고 봐요.

00:17:53.354 --> 00:17:54.833

햇웃 같은 경우는
우리 배운 적 있죠.

00:17:54.933 --> 00:18:00.597
이 핫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숨을 넣은,
숨을 둔 이런 옷을 의미하는 거에서

00:18:00.697 --> 00:18:07.197
따뜻한 옷을 이야기할 때 핫, 뜨겁다의
그런 외래어 느낌 나기도 하는데

00:18:07.297 --> 00:18:07.939
그건 아니었고.

00:18:08.039 --> 00:18:11.914
못하면 못 사람들이 하면 대중을
이야기할 때 쓰이는 어휘입니다.

00:18:12.014 --> 00:18:16.942
그러면 여기서 ㄷ 소리로 나는 받침
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을 때

00:18:17.042 --> 00:18:21.506
ㅅ으로 적으라는 이야기는 만약에
ㄷ으로 적을만한 근거가 있으면

00:18:21.606 --> 00:18:22.880
ㄷ으로 적어야 되겠죠.

00:18:22.980 --> 00:18:24.374
어떤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?

00:18:24.474 --> 00:18:27.216
예를 들면 돈보다.

00:18:27.316 --> 00:18:29.276
우리는 돈보다, 라는 표현 보다

00:18:29.376 --> 00:18:32.000
돈보이다, 라는 피동형으로
더 많이 쓰는 건데

00:18:32.100 --> 00:18:35.438
여기에 이 돈 같은 경우에는

00:18:35.538 --> 00:18:39.513
그 대상을 높게, 라는
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인

00:18:39.613 --> 00:18:41.399
이 도두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.

00:18:41.499 --> 00:18:44.192
그러면 여기에 이
ㄷ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

00:18:44.292 --> 00:18:47.709
ㄷ으로 적을만한 근거가 충분히
있다고 봐야 되겠죠.

00:18:47.809 --> 00:18:53.706
또 예를 들면 걷잡다, 이런 단어.

00:18:53.806 --> 00:18:58.102

이거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
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.

00:18:58.202 --> 00:19:01.577

이 두 단어가 다 존재하는데
애 같은 경우는 겹.

00:19:01.677 --> 00:19:07.317

속, 겹 이런 개념이니까 겹잡아도
만 원 정도는 돼 보인다.

00:19:07.417 --> 00:19:10.846

이런 이야기할 때 약간 어림짐작하다의
뜻, 겹을 보다, 라는

00:19:10.946 --> 00:19:13.876

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
이렇게 써줘야 되는 단어고.

00:19:13.976 --> 00:19:18.647

애는 어떤 거냐면,
견잡을 수 없는 불길.

00:19:18.747 --> 00:19:20.516

이런 표현 쓸 때는 이게 아니에요.

00:19:20.662 --> 00:19:24.326

어림짐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견잡을
수 없는 불길, 이렇게 써야 되는데

00:19:24.426 --> 00:19:27.872

그러면 애가 어디서 온 말이나,
거두어 잡을 수 없는.

00:19:27.972 --> 00:19:28.828

이런 표현이거든요.

00:19:28.928 --> 00:19:32.212

그러면 거두다에서의
어간 부분인 거두의

00:19:32.312 --> 00:19:34.232

ㄷ이 받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

00:19:34.332 --> 00:19:37.390

그래서 ㄷ으로 적을만한
근거가 있는 거죠.

00:19:37.490 --> 00:19:40.779

그다음에 낱알이라든지
낱알 이런 단어.

00:19:40.879 --> 00:19:42.520

껍질을 벗기지 않는 알.

00:19:42.620 --> 00:19:46.366

이런 것들도 한 알,
한 알을 이야기할 때의 낱알.

00:19:46.466 --> 00:19:47.780

이런 거량은 의미가 다릅니다.

00:19:47.880 --> 00:19:50.530
그래서 이런 것들은 ㄷ으로 적을만한
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

00:19:50.630 --> 00:19:53.681
이때는 이렇게 적어주되 그럴
이유가 없는 단어들이라면

00:19:53.781 --> 00:19:56.811
ㅅ으로 적게 된다는 원칙.

00:19:56.911 --> 00:19:59.582
다음 모음에 대한 내용이에요.

00:19:59.682 --> 00:20:04.324
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표준
발음법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

00:20:04.424 --> 00:20:05.922
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

00:20:06.022 --> 00:20:11.178
ㄱ, ㅋ을 제외한 이러한
자음들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놈들은

00:20:11.278 --> 00:20:13.488
ㄱ로 발음하는 게 가능하다는
조건이 있어요.

00:20:13.588 --> 00:20:16.745
그런데 소리가 ㄱ로
발음이 난다 할지라도

00:20:16.845 --> 00:20:18.735
적기는 그렇게 적지
말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20:18.835 --> 00:20:21.630
그러니까 여기 맞춤법은 적는
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.

00:20:21.730 --> 00:20:23.184
ㄱ이 맞고 ㄴ이 틀려요.

00:20:23.284 --> 00:20:29.276
그러니까 발음은 이 단어, 계수나무 할
때 계수나무 해도 좋고요.

00:20:29.376 --> 00:20:31.153
계수나무 해도 괜찮아요.

00:20:31.253 --> 00:20:33.236
그건 발음법에 있어서
그렇게 되어있어요.

00:20:33.336 --> 00:20:36.792
그래서 소리가 계수나무라고 해도

00:20:36.892 --> 00:20:38.941

적기는 이렇게 적어서는 안
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0:39.041 --> 00:20:42.125
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사례.

00:20:42.225 --> 00:20:44.255
그다음에 연떼가 아니라 연떼.

00:20:44.355 --> 00:20:46.047
여러분이 이런 어휘는
아예 모르잖아요.

00:20:46.147 --> 00:20:48.934
연대하다, 함께 하다 이런
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.

00:20:49.034 --> 00:20:51.032
그다음에 폐품, 발음은 팬참아.

00:20:51.132 --> 00:20:55.402
그런데 적을 때는 폐품, 이렇게
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0:55.502 --> 00:20:59.331
다만, 다음 말은 본음대로
적는다고 이야기해놓고

00:20:59.431 --> 00:21:04.187
아예 꺾이 아니라 꺾을 쓰는
게송, 게시판, 휴게실.

00:21:04.287 --> 00:21:05.643
이런 단어들이 있어요.

00:21:05.743 --> 00:21:10.462
게송 같은 경우는 불교 용어이기
때문에 저건 나오기 힘들고

00:21:10.562 --> 00:21:13.199
게시판이나 휴게실에서는
이게 왜 이러냐면

00:21:13.299 --> 00:21:17.866
한자어 자체가 실제
꺾이 아니라 꺾어요.

00:21:17.966 --> 00:21:19.889
단어 자체가 꺾이 자예요.

00:21:19.989 --> 00:21:22.199
여기 높이들 꺾이 자가 나와 있고요.

00:21:22.299 --> 00:21:24.671
그다음에 여기는 쉼 꺾이 자
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.

00:21:24.771 --> 00:21:31.188
여기 높이들 꺾이 자를 이용한 단어
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주세요.

00:21:31.288 --> 00:21:33.338

국기 게양식 할 때.

00:21:33.438 --> 00:21:36.021

많이 들어봤는데 국기
게양식 어떻게 쓰지?

00:21:36.121 --> 00:21:40.394

하고 국기 게양식이나 게양식 이렇게
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21:40.494 --> 00:21:44.913

이게 높이들 게 자를 사용하고 있는
게양,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

00:21:45.013 --> 00:21:47.484

다음, 9항입니다.

00:21:47.584 --> 00:21:49.699

이것도 발음법하고 관련이 있어요.

00:21:49.799 --> 00:21:53.684

우리가 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
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볼 텐데

00:21:53.784 --> 00:21:57.927

'의'의 발음이 상당히 다양해요.

00:21:58.027 --> 00:21:59.830

그러니까 조건에 따라
상당히 다양해집니다.

00:21:59.930 --> 00:22:04.832

그래서 애가 2음절 뒤로 가 있을
때랑 조사 의로 쓰였을 때랑 해서

00:22:04.932 --> 00:22:06.503

허용 범위가 생기거든요.

00:22:06.603 --> 00:22:09.143

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
시간에 맞춤법이니까

00:22:09.243 --> 00:22:13.526

애가 다른 소리가 나도 적을 때는
이렇게 적으라는 이야기예요.

00:22:13.626 --> 00:22:14.272

그 이야기입니다.

00:22:14.372 --> 00:22:16.557

그래서 '의'나 자음을 첫소리로
가지고 있는 음절의 'ㄴ'은

00:22:16.657 --> 00:22:19.977

'ㄴ'로 소리 나는 경우가
있더라도 어쨌든 적을 때는 원칙상

00:22:20.077 --> 00:22:21.195

'ㄴ'로 적어야 된다.

00:22:21.295 --> 00:22:26.697
즉 애가 발음이 될 때 의의라고
발음이 되는 게 맞아요, 괜찮아요.

00:22:26.797 --> 00:22:30.161
원칙인데 애를 발음할 때는
실제 이렇게 발음이 돼요.

00:22:30.261 --> 00:22:31.527
의이 해도 괜찮고요.

00:22:31.627 --> 00:22:35.445
그다음에 본의가 아니었어요,
라고 해도 되고

00:22:35.545 --> 00:22:38.075
본이가 아니었어요, 라고
해도 돼요, 발음은.

00:22:38.197 --> 00:22:42.082
그러나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
표기하면 이상하잖아요.

00:22:42.182 --> 00:22:43.804
무니가 참 예쁘다, 이렇게
쓸 수 없잖아요.

00:22:43.904 --> 00:22:47.835
그래서 적을 때는 원칙대로
의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2:47.935 --> 00:22:49.246
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된다?

00:22:49.346 --> 00:22:55.865
떠어쓰기라고 발음은 가능하고
띄어쓰기라고 하는 발음은 불가능하다.

00:22:55.965 --> 00:23:00.087
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음을
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

00:23:00.187 --> 00:23:03.182
'의'의 경우에는 이때는 모음이잖아요.

00:23:03.282 --> 00:23:07.215
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으니까 이럴
때는 '의'나 '이'나 다 가능한데

00:23:07.315 --> 00:23:10.650
자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
띄어쓰기, 이렇게 안 되잖아요.

00:23:10.750 --> 00:23:12.556
그래서 애는 무조건
발음이 이렇게 돼요.

00:23:12.720 --> 00:23:15.086
그런데 적을 때는
이렇게 써야 된다.

00:23:15.186 --> 00:23:18.306

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
적기 방법이에요.

00:23:18.406 --> 00:23:22.797

다음, 두음 법칙에
대한 내용입니다.

00:23:22.897 --> 00:23:27.855

두음 법칙은 총 3개, 10항,
11항, 12항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

00:23:27.955 --> 00:23:32.390

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
두음이니까 첫소리이지 않습니까?

00:23:32.490 --> 00:23:36.883

이 첫소리에 ㄴ이나 ㄹ이
오는 걸 불편해하잖아요.

00:23:36.983 --> 00:23:39.926

그래서 ㄴ이 왔을 때 상황에 따라.

00:23:40.026 --> 00:23:41.961

상황을 외울 건 아니니까.

00:23:42.061 --> 00:23:44.699

여기에 있는 녀, 뇨, 뉴, 니.
이 이런 건 뭐하러 봅니까,

00:23:44.799 --> 00:23:46.964

외울 필요 없고 적용만
잘하시면 돼요.

00:23:47.064 --> 00:23:49.656

그래서 어쨌든 ㄴ이 빠지는 거야.

00:23:49.756 --> 00:23:52.382

어떤 상황에서 ㄴ이 두음에
왔을 때 빠지는 거.

00:23:52.482 --> 00:23:56.569

중요한 건 한자음이어야 돼요.

00:23:56.669 --> 00:23:59.495

그래서 한자음일 때 고유어나
외래어는 안 돼요.

00:23:59.595 --> 00:24:02.372

그래서 한자음일 때 결국
ㄴ이 어떻게 되는 현상?

00:24:02.472 --> 00:24:04.085

두음에 왔을 때 없어지는 현상.

00:24:04.185 --> 00:24:07.025

또는 ㄹ이 없어지는 현상.

00:24:07.125 --> 00:24:09.335

또는 ㄹ이 ㄴ으로 변하는 현상.

00:24:09.435 --> 00:24:10.830

사실 이렇게 3종류거든요.

00:24:10.930 --> 00:24:13.834

그래서 이걸 두음 법칙으로
제시해주는 겁니다.

00:24:13.934 --> 00:24:14.904

잘 아는 이야기예요.

00:24:15.004 --> 00:24:19.325

지금 실제 이 여자는 계집 녀,
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.

00:24:19.425 --> 00:24:22.688

그런데 그 녀 자가
1음절에 왔을 때는

00:24:22.788 --> 00:24:25.515

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자,
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.

00:24:25.615 --> 00:24:28.581

해 년 자인데 애가
1음절에 왔을 때는

00:24:28.681 --> 00:24:30.300

연세, 이렇게 써줘야
된다는 이야기잖아요.

00:24:30.400 --> 00:24:35.105

그래서 유대, 이토 이것도
진흙 니 자인데 이거를 이토.

00:24:35.205 --> 00:24:39.264

처음 1음절에 왔을 때 두음 법칙
적용해주는 예가 되겠고요.

00:24:39.364 --> 00:24:43.947

다만,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
첫 번째 음절인데도 불구하고

00:24:44.087 --> 00:24:45.614

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.

00:24:45.714 --> 00:24:47.885

그래서 냥 같은 거 나왔죠.

00:24:47.985 --> 00:24:49.106

한 냥, 두 냥.

00:24:49.206 --> 00:24:51.570

한냥쫘, 년 이런 것들.

00:24:51.670 --> 00:24:57.102

그래서 삼 년 할 때 이렇게
띄어 쓸 거 아니야.

00:24:57.202 --> 00:25:02.991

그러면 애가 1음절에 왔는데도
불구하고 한자어이면 두음 법칙 적용해서

00:25:03.091 --> 00:25:06.603

너는 여로 변하니까 삼 연,
이렇게 적어야 하느냐.

00:25:06.703 --> 00:25:07.906

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

00:25:08.006 --> 00:25:11.305

왜? 애네들은 의존 명사니까.

00:25:11.405 --> 00:25:15.814

선생님, 너은 자주 쓰니까 알겠지만,
냥은 쓰겠습니까, 라고 하는데

00:25:15.914 --> 00:25:17.078

지금도 써요.

00:25:17.178 --> 00:25:22.064

엽전세는 단위로만 쓰는 게 아니라
금 셀 때 쓸 수 있습니다.

00:25:22.164 --> 00:25:24.159

그래서 한 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.

00:25:24.259 --> 00:25:27.308

한 돈이 모여서 10돈이 되면
그걸 한 냥이라고 해요.

00:25:27.408 --> 00:25:30.076

그래서 아직도 쓰는 단위고요.

00:25:30.176 --> 00:25:35.342

이제 계속 가서 단어의 이외라고
한다면 이게 지금 두음 법칙이니까

00:25:35.442 --> 00:25:38.639

두음이 적용이 안 되면 본음대로
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25:38.739 --> 00:25:41.587

그래서 아까 여자 할 때는
두음 법칙을 적용했지만

00:25:41.687 --> 00:25:45.877

2음절, 3음절 뒤로
밀려쓰면 그대로 녀로 적어주고

00:25:45.977 --> 00:25:49.657

요소라고 적었던 것이 당뇨,
원칙대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5:49.757 --> 00:25:52.315

붙임 2는 이게 참 애매해.

00:25:52.415 --> 00:25:55.483

애네도 어문 규정 만들어줄 때

00:25:55.583 --> 00:26:00.950

정확하게 어떤 한자는 접두사다, 라고
명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

00:26:01.050 --> 00:26:03.091
사전 따라 좀 다르기도 하니까.

00:26:03.191 --> 00:26:04.625
그래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.

00:26:04.725 --> 00:26:07.757
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
붙어서 된 말이나

00:26:07.857 --> 00:26:10.966
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
'ㄴ' 소리로 나더라도

00:26:11.066 --> 00:26:11.987
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.

00:26:12.087 --> 00:26:17.735
무슨 이야기냐, 계집 녀 자
1음절이 아니라 2음절이네?

00:26:17.835 --> 00:26:20.878
그러면 애는 신녀성이라고
적으면 되겠네요?

00:26:20.978 --> 00:26:23.165
그런데 붙임 2의 원칙이
무슨 이야기입니까.

00:26:23.265 --> 00:26:23.920
이제 이해하셔야 돼요.

00:26:24.020 --> 00:26:25.012
이걸 줄 거예요.

00:26:25.112 --> 00:26:28.444
주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.

00:26:29.102 --> 00:26:32.138
신이라고 하는 것이
뭐로 쓰이는 것이다?

00:26:32.238 --> 00:26:35.058
실제로 접두사이기도 해요.

00:26:35.158 --> 00:26:39.265
그러니까 신이 새로운의 의미를
가지고 있는 한자어 접두사.

00:26:39.365 --> 00:26:41.757
실제로 이 신이라고
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

00:26:41.857 --> 00:26:44.017
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
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

00:26:44.117 --> 00:26:47.512
세대 앞에 신세대 알겠어요?

00:26:47.612 --> 00:26:50.829
그다음에 새로운 학기를 이야기할 때
신학기,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?

00:26:50.929 --> 00:26:55.344
그러면 세대나 학기라고 하는 어휘
바로 앞에 붙여버린단 말이에요.

00:26:55.444 --> 00:26:57.440
바로 앞에 붙일 수
있다는 건 뭘니까?

00:26:57.540 --> 00:26:58.743
접두사라는 이야기잖아요.

00:26:58.843 --> 00:27:02.126
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
한자어가 접두사로 쓰이는 건데

00:27:02.226 --> 00:27:06.018
애가 접두사처럼 쓰이는, 또는
접두사인 한자이기 때문에

00:27:06.118 --> 00:27:08.278
그래서 2음절에 나왔다 할지라도

00:27:08.378 --> 00:27:10.645
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
느낌이 든다는 거죠.

00:27:10.745 --> 00:27:12.856
이럴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해줍니다.

00:27:12.956 --> 00:27:16.168
역시 공념불이라고 적지 않아요.

00:27:16.268 --> 00:27:21.532
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

00:27:21.632 --> 00:27:24.215
이때 생각할 념 자 같은
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.

00:27:24.315 --> 00:27:27.016
신념, 이럴 때는 념으로
적어주잖아요, 2음절 때.

00:27:27.116 --> 00:27:31.643
그런데 애도 2음절인데 왜 념이라고
안 적고 염이라고 적어주느냐,

00:27:31.743 --> 00:27:35.884
공이 뒤편이니까?
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기 때문에.

00:27:35.984 --> 00:27:36.809
빌 공 자.

00:27:36.909 --> 00:27:37.877
어떤 단어 있을까요?

00:27:37.977 --> 00:27:39.053

예를 들면 공수표.

00:27:39.153 --> 00:27:40.526

공수표를 날렸다.

00:27:40.626 --> 00:27:41.513

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.

00:27:41.613 --> 00:27:44.878

그러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수표,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.

00:27:45.004 --> 00:27:50.500

그러면 이때의 공도 염불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공염불.

00:27:50.600 --> 00:27:51.628

이런 표현 쓰는 거거든요.

00:27:51.728 --> 00:27:56.359

그래서 녀미 아니라 염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다, 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27:56.459 --> 00:27:59.743

또 이렇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.

00:27:59.843 --> 00:28:00.782

옛날이야기죠.

00:28:00.882 --> 00:28:04.400

그래서 사자성어 이야기한 옛날 건데 이런 거 합성어 같은 데도

00:28:04.500 --> 00:28:07.982

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28:11.468 --> 00:28:15.641

이번에는 ㄹ이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

00:28:15.741 --> 00:28:19.176

이건 외울 필요 없죠.

00:28:19.276 --> 00:28:19.859

봅시다.

00:28:19.959 --> 00:28:22.573

ㄱ이 맞고 ㄴ이 틀려요, 그렇죠.

00:28:22.673 --> 00:28:26.073

누가 량심, 력사, 례의.

00:28:26.173 --> 00:28:29.802

두음 법칙을 남쪽에서는 잘 지켜주지만, 북한에서는 안 지켜주잖아요.

00:28:29.902 --> 00:28:33.210

그러니까 만약에 누가

량심이 있네, 없네.

00:28:33.310 --> 00:28:34.372
의심해보셔야 돼요.

00:28:34.472 --> 00:28:37.241
간접 아니야? 하면서.

00:28:37.341 --> 00:28:39.704
이렇게 자꾸 쓰면
류행이 돌고 있어요.

00:28:39.804 --> 00:28:41.219
리발했네.

00:28:41.319 --> 00:28:42.962
간첩이야, 간첩.

00:28:43.062 --> 00:28:44.409
누가 이렇게 써, 이렇게 써야죠.

00:28:44.509 --> 00:28:47.154
역시 마찬가지로 의존
명사의 경우에는

00:28:47.254 --> 00:28:49.806
이대로 한자어지만 그럴
리가 없다, 몇 리야?

00:28:49.906 --> 00:28:52.592
이렇게 적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8:52.692 --> 00:28:57.920
또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
원칙대로 ㄹ 유지해줘야 되겠죠?

00:28:58.020 --> 00:29:01.837
그래서 아까 량심이라고 하는
것을 두 번째 음절에서는

00:29:01.937 --> 00:29:05.902
개양이라고 안 하고 좋을 량 자를
개량이라고 적어준 걸 볼 수가 있죠?

00:29:06.002 --> 00:29:07.593
선량,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.

00:29:07.693 --> 00:29:09.061
쭉 나옵니다.

00:29:09.161 --> 00:29:11.139
이걸 좀 주목해보셔야 되겠어요.

00:29:11.239 --> 00:29:15.794
이거는 외웠으면 좋겠는데?

00:29:15.894 --> 00:29:16.484
이런 게 있어요.

00:29:16.584 --> 00:29:19.796
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

이 두 가지 렬이라든지

00:29:19.896 --> 00:29:25.348
그다음에 룰이라고 하는 한자음인데
이놈이 뒤에 붙을 거 아니에요.

00:29:25.448 --> 00:29:29.026
붙을 때 이게 원칙이에요.

00:29:30.092 --> 00:29:34.697
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애가 어딘가
단어가 있고 뒤에 붙는 거니까.

00:29:34.797 --> 00:29:39.912
그런데 원칙에서 예외가
있단 말이에요.

00:29:40.012 --> 00:29:42.730
즉 애네들을 갑자기
두음 법칙을 적용해줘 버려.

00:29:42.830 --> 00:29:46.549
열, 율 하면서 두음 법칙을
적용하는 예외가 있어요.

00:29:46.649 --> 00:29:47.932
그게 언제냐, 라는 겁니다.

00:29:48.032 --> 00:29:52.250
그래서 그걸 외워주시면 좋은데
어디에 왔을 때냐면,

00:29:52.350 --> 00:29:58.813
ㄴ 받침 뒤 그리고
모음으로 끝난 단어 뒤.

00:29:58.913 --> 00:30:02.004
특히나 모음 뒤는 고민할
필요가 없어요.

00:30:02.104 --> 00:30:04.004
사실 발음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.

00:30:04.104 --> 00:30:14.372
예를 들면 여기 받침 없는
'나'나 '치'나 '비'나 '비'.

00:30:14.472 --> 00:30:15.161
이런 거 나오잖아요.

00:30:15.261 --> 00:30:16.121
한번 가보세요.

00:30:16.221 --> 00:30:20.581
나렬, 발음이 힘들잖아요.
나열.

00:30:20.681 --> 00:30:22.778
비룰, 비율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30:22.878 --> 00:30:27.484

그래서 모음 뒤라고 한다면
나, 비 이런 거 해서

00:30:27.584 --> 00:30:29.752
나열, 비올 모음 뒤 나, 비.

00:30:29.852 --> 00:30:32.116
이런 거 뒤에는 발음상으로도
애가 힘들어요.

00:30:32.216 --> 00:30:34.135
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.

00:30:34.235 --> 00:30:38.070
정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
되는 게 이거 뒤.

00:30:38.170 --> 00:30:41.659
왜냐하면 여러분, ㄴ이
울림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?

00:30:41.759 --> 00:30:43.751
그래서 이걸 잘못
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

00:30:43.851 --> 00:30:46.597
울림소리 뒤라고 오해를
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

00:30:46.697 --> 00:30:48.428
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.

00:30:48.528 --> 00:30:49.660
그래서 ㄴ 뒤만.

00:30:49.760 --> 00:30:52.360
그래서 보시면 분렬이 아니라 분열.

00:30:52.460 --> 00:30:54.184
선렬이 아니라 선열.

00:30:54.284 --> 00:30:55.633
그다음 진렬이 아니라 진열.

00:30:55.733 --> 00:30:59.095
그다음에 백분륵이 아니라 백분율.

00:30:59.195 --> 00:31:00.389
이렇게 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0:31:00.489 --> 00:31:12.399
그다음에 생산율이다, 생산률이다?

00:31:12.499 --> 00:31:15.085
생산율이다, 이렇게 적어야
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1:15.185 --> 00:31:18.336
왜냐하면, ㄴ 받침 뒤기 때문에
륵이 아니라 율로 바꿔주는,

00:31:18.436 --> 00:31:21.828

두음 법칙을 적용해주는 예외가
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1:21.928 --> 00:31:23.242

이해되지요?

00:31:23.342 --> 00:31:25.983

그래서 꼭 ㄴ 받침도 기억해주세요.

00:31:26.083 --> 00:31:29.731

ㄹ 뒤도 웬지 읊, 렐 이럴
것 같은데 안 그래요.

00:31:29.831 --> 00:31:32.037

그래서 챙겨주시고.

00:31:32.137 --> 00:31:35.126

다음, 또 마찬가지로요.

00:31:35.226 --> 00:31:37.684

여기도 접두사처럼 쓰이는
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

00:31:37.784 --> 00:31:40.521

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'ㄴ'
또는 'ㄹ' 소리로 나더라도

00:31:40.621 --> 00:31:42.140

두음 법칙에 따라
적는다는 이야기예요.

00:31:42.240 --> 00:31:44.715

그래서 여기는 역리용이
아니라 역이용.

00:31:44.815 --> 00:31:47.713

역이라고 하는 게
접두사처럼 쓰이고 있는,

00:31:47.813 --> 00:31:50.264

또는 ㄴ, ㄹ 뒤 이런
개념이라는 거예요.

00:31:50.364 --> 00:31:51.705

이 정도면 됐어요.

00:31:51.805 --> 00:31:54.845

이제 12항의 경우에는 ㄹ이
ㄴ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.

00:31:54.945 --> 00:31:56.526

ㄱ이 맞고 ㄴ이 틀려요.

00:31:56.626 --> 00:32:00.780

역시나 ㄴ처럼 발음하고
적게 되면 북한 사람.

00:32:00.880 --> 00:32:05.428

그러니까 락원으로 갑시다,
이러면 안 돼요.

00:32:05.528 --> 00:32:08.777

다음,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
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.

00:32:08.877 --> 00:32:16.601

2음절로 가니까 낙원이라고
했던 걸 극락이라고 적어주죠?

00:32:16.701 --> 00:32:21.637

우리가 여기 좀 챙겨봐야 되는
게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

00:32:21.737 --> 00:32:25.704

이런 것들도 하나
기억해볼 법 해요.

00:32:29.291 --> 00:32:30.299

이게 뭐예요?

00:32:30.399 --> 00:32:32.541

가정란이라고 하는 게
어떤 뜻입니까?

00:32:32.641 --> 00:32:36.839

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어주는
그 지면이 있어요.

00:32:36.939 --> 00:32:40.058

그걸 우리가 일정 부분 란이라는
표현을 쓰게 되거든요.

00:32:40.158 --> 00:32:48.485

그래서 이거도 하나 기억해보시면
란이나 량, 이렇게 쓰는 거.

00:32:48.585 --> 00:32:52.176

그런데 애가 두음 법칙을
적용해서 난이라

00:32:52.276 --> 00:32:54.803

애는 빠지는 거죠.

00:32:54.903 --> 00:32:56.131

여기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.

00:32:56.231 --> 00:32:58.878

큰이 느으로 바뀌거나 큰이
빠지거나 하는 방식인데

00:32:58.978 --> 00:33:00.572

둘 다 두음 법칙이거든요?

00:33:00.672 --> 00:33:01.696

이렇게 가는 경우.

00:33:01.796 --> 00:33:06.642

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이게
예외가 되는 거거든요.

00:33:06.742 --> 00:33:10.470

이건 언제나, 아까 전에
열이라 물이 바뀌는 경우는

00:33:10.570 --> 00:33:13.033
↳ 받침 뒤나 모음
뒤라고 했잖아요.

00:33:13.133 --> 00:33:14.242
애는 경우가 달라요.

00:33:14.342 --> 00:33:22.057
뭐냐하면, 한자어 뒤에서는
란이나 랑이 붙어요.

00:33:22.157 --> 00:33:28.786
그런데 애는 고유어나
외래어 뒤에서는

00:33:28.886 --> 00:33:32.672
란이나 랑으로 두음 법칙을
적용하는 걸 씁니다.

00:33:32.772 --> 00:33:33.606
한번 적용해볼게요.

00:33:33.706 --> 00:33:36.379
여기 가정란 나왔잖아요.

00:33:36.479 --> 00:33:38.646
그러면 이 가정은
한자어인 거 보이죠?

00:33:38.746 --> 00:33:42.559
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
실어주는 그러한 지면이라고 해서

00:33:42.659 --> 00:33:44.101
가정란으로 가는 겁니다.

00:33:44.201 --> 00:33:46.838
그러면 어린이와 관련된
그런 내용을 실어주겠다.

00:33:46.938 --> 00:33:48.285
그러면 어린이는 고유어잖아요.

00:33:48.385 --> 00:33:52.316
그러면 어린이란, 이렇게
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33:52.416 --> 00:33:56.052
또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들을 외래어로
가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

00:33:56.152 --> 00:34:00.495
그래서 가십란, 이렇게
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34:00.595 --> 00:34:01.213
이해되세요?

00:34:01.313 --> 00:34:03.007

그다음 량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34:03.107 --> 00:34:04.561

어느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?

00:34:04.661 --> 00:34:10.233

그래서 탄소량,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,
탄소 이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

00:34:10.333 --> 00:34:13.059

탄소량, 탄소량 측정, 이렇게
써줘야 되는 거예요.

00:34:13.159 --> 00:34:19.140

그런데 예를 들면 구름의 양이다 그러면
구름량이 아니라 고유어기 때문에

00:34:19.240 --> 00:34:22.672

구름양으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예요.

00:34:22.772 --> 00:34:23.456

알겠습니까?

00:34:23.556 --> 00:34:29.416

또 만약에 가스 그러면 가스는
외래어니까 가스량이 아니라 가스양.

00:34:29.516 --> 00:34:30.873

이렇게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4:30.973 --> 00:34:31.686

원칙 이해되세요?

00:34:31.786 --> 00:34:36.298

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
앞부분이 고유어나 외래어.

00:34:36.398 --> 00:34:41.945

이런 거 뒤에는 이렇게 두음 법칙을
적용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고요.

00:34:42.045 --> 00:34:44.767

다음, 또 마찬가지로예요.

00:34:44.867 --> 00:34:47.123

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
붙었다고 한다면

00:34:47.223 --> 00:34:51.135

뒷말을 두음 법칙을
적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.

00:34:51.235 --> 00:34:52.291

겹쳐 나는 소리.

00:34:52.391 --> 00:34:54.809

아까 전에 걸 다시
한번 기억하시면,

00:34:54.909 --> 00:34:58.788

기이나 ㅂ 받침 뒤에 나와
있는 거 몇 항이었어요?

00:34:58.919 --> 00:35:00.250
여러분이 앞에 확인해보세요.

00:35:00.350 --> 00:35:01.823
어떤 게 있었죠?

00:35:01.923 --> 00:35:03.728
된소리 발음 나오는 부분입니다.

00:35:03.828 --> 00:35:07.188
기이나 ㅂ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
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

00:35:07.288 --> 00:35:09.356
그때 앞에 전제 조건이
하나 있었어요.

00:35:09.456 --> 00:35:10.951
뭐냐하면, 겹쳐나는 소리.

00:35:11.051 --> 00:35:14.122
아니면 같은 비슷한 소리가
아니라면이라고 했거든요?

00:35:14.222 --> 00:35:15.689
이게 먼저 선행됩니다.

00:35:15.789 --> 00:35:20.391
즉 13항을 보게 되면 한
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

00:35:20.491 --> 00:35:23.468
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같은
글자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5:23.568 --> 00:35:24.671
예를 들어 볼게요.

00:35:24.771 --> 00:35:27.416
애 지금 형태소를 딱하고
딱으로 끊진 않아요.

00:35:27.516 --> 00:35:30.352
그러면 딱딱이라는 단어가
하나 있다는 건데

00:35:30.452 --> 00:35:32.743
아까 기이나 ㅂ 받침
뒤에 나오는 된소리는

00:35:32.843 --> 00:35:34.106
된소리로 안 적는다고 했잖아요.

00:35:34.206 --> 00:35:37.228
그러면 애도 된소리로 안 적을
거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

00:35:37.328 --> 00:35:41.107

이 소리가 사실은 같은
음절이거든요, 반복.

00:35:41.207 --> 00:35:45.271
또 씹쌀하다 같은
경우도 한번 봅시다.

00:35:45.371 --> 00:35:48.625
ㄱ이나 ㅂ 받침 뒤에 나오는 건
된소리로 안 적기로 했죠.

00:35:48.725 --> 00:35:50.320
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?

00:35:50.420 --> 00:35:53.784
그게 아니라 씹쌀이라고
하는 단어 자체가

00:35:53.884 --> 00:35:56.434
씹이랑 쌀이랑 되게 비슷하게
생겼다는 이야기죠.

00:35:56.534 --> 00:35:59.647
그래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
음절의 단어가 있다면

00:35:59.747 --> 00:36:01.689
그거는 된소리로
적겠다는 이야기에요.

00:36:01.789 --> 00:36:04.129
ㄱ 뒤든 ㅂ 뒤든 그건 상관없이.

00:36:04.229 --> 00:36:06.241
그래서 쪽 나오는 예들을 보시면.

00:36:06.341 --> 00:36:09.657
물론 ㄱ, ㅂ 뒤에 나오는
단어 아닌 것도 많죠.

00:36:09.757 --> 00:36:14.276
어쨌든 비슷한 음절이 된소리 발음
나올 때, 같은 음절 나올 때

00:36:14.376 --> 00:36:16.158
연달아 적어주면 됩니다.

00:36:16.258 --> 00:36:21.434
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음 법칙
적용해서 유류상중 이렇지 않아요.

00:36:21.534 --> 00:36:23.536
누루이 이렇지 않아요.

00:36:23.636 --> 00:36:27.598
그래서 원칙대로 그냥 반복하는
방식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6:27.698 --> 00:36:32.246
다음, 이번에는 형태에 관한
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.

00:36:32.346 --> 00:36:32.956
체언과 조사.

00:36:33.056 --> 00:36:34.229
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야.

00:36:34.329 --> 00:36:37.087
당연한 내용이어서
כות방귀 쫓 수 있어.

00:36:37.187 --> 00:36:38.585
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.

00:36:38.685 --> 00:36:42.309
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
나는 대로 꼬치라고 적지 아니하고

00:36:42.409 --> 00:36:45.941
꽃하고 이를 구분해주는 것처럼
지금 쪽 나와 있는 예들.

00:36:46.041 --> 00:36:49.301
뭐 이렇게 예문을 많이 적어주나
그럴도 없는데, 그렇죠?

00:36:49.401 --> 00:36:54.596
보면 각 단어 받침들이 있는데 이
받침들이 뒤로 넘어가게끔 적진 않죠.

00:36:54.696 --> 00:36:59.079
그래서 형태소를 유지하면서
적어준다는 이야기 14항입니다.

00:36:59.179 --> 00:37:03.113
이번에는 어간하고 어미, 15항.

00:37:03.213 --> 00:37:05.683
어간하고 어미도 여전히
구분해 적어야 되겠죠.

00:37:05.783 --> 00:37:09.510
우리가 중세시기처럼 이어적기
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?

00:37:09.610 --> 00:37:10.506
끊어적기 해야 되겠죠.

00:37:10.606 --> 00:37:17.192
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적어주는데
어차피 애네들은 상관이 없지만

00:37:17.292 --> 00:37:18.676
애네들 같은 경우 보세요.

00:37:18.776 --> 00:37:20.515
이거를 소리 나는
대로 적었다고 하면

00:37:20.615 --> 00:37:24.115
ㄱ 넘어가서 머거, 이렇게

적을 거 아납니까?

00:37:24.241 --> 00:37:25.731
맞춤법 파괴, 너 머거.

00:37:25.831 --> 00:37:26.793
이렇게 적지 맙시다.

00:37:26.893 --> 00:37:30.913
그래서 이런 거 먹어, 믿어, 울어
해서 형태를 유지해준다는 건데

00:37:31.013 --> 00:37:33.900
이거는 왜 괄호 쳤니?

00:37:34.000 --> 00:37:34.485
아시죠?

00:37:34.585 --> 00:37:38.323
ㄹ 받침의 경우에는
으가 안 오잖아요.

00:37:38.423 --> 00:37:42.277
ㄹ 받침의 경우에는 매개모음 으가 안
오고 곧바로 '니'가 들어오는데

00:37:42.377 --> 00:37:46.091
ㄴ이나 ㄹ이나 ㅅ이나 ㅇ가
올 경우에 ㄹ이 빠지게 되죠.

00:37:46.191 --> 00:37:49.303
그래서 울니가 아니라 우니,
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.

00:37:49.403 --> 00:37:52.960
그래서 애가 좀 특수하니까 괄호가
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

00:37:53.060 --> 00:37:55.939
다음, 붙임 1입니다.

00:37:56.039 --> 00:37:59.794
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
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,

00:37:59.894 --> 00:38:02.405
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
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,

00:38:02.505 --> 00:38:05.104
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
적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인데

00:38:05.204 --> 00:38:06.320
이건 됐어요.

00:38:06.420 --> 00:38:08.015
1번, 본뜻이 유지되고 있대요.

00:38:08.115 --> 00:38:09.536
그렇대요.

00:38:09.636 --> 00:38:10.713

외울 필요 없는 거니까.

00:38:10.813 --> 00:38:15.751

그래서 넘다나 늘다나 돌다나
되짚다나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

00:38:15.851 --> 00:38:18.947

형태를 유지해주고
넘어지다, 늘어나다.

00:38:19.047 --> 00:38:20.432

이렇게 적어주는 거고.

00:38:20.532 --> 00:38:24.785

밑에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
들다와 나다가 연결됐는데

00:38:24.885 --> 00:38:27.061

드러나다가 들다의
뜻이 없는 거 같아.

00:38:27.161 --> 00:38:30.932

그래서 드러라고 소리를
연결해서 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0:38:31.032 --> 00:38:33.645

살아지다, 라고 안 하고 사라지다.

00:38:33.745 --> 00:38:38.205

썰어지다가 아니라 쓰러지다고 소리 나는
대로 적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.

00:38:38.305 --> 00:38:44.266

즉 형태를 유지해주는 것과 형태를
유지하지 않고 적는 것은 어떤 차이다?

00:38:44.366 --> 00:38:48.495

앞말의 단어가 본뜻에서
떨어졌느냐, 안 떨어졌느냐.

00:38:48.595 --> 00:38:51.475

이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진대요.

00:38:51.575 --> 00:38:56.163

다음, 불임 2입니다.

00:38:56.263 --> 00:38:58.397

이거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.

00:38:58.497 --> 00:39:02.587

종결형에서 높임법 공부했죠.

00:39:02.687 --> 00:39:07.151

그러면 높임법 중에서 상대 높임법
중에 하오체라는 게 있었고

00:39:07.251 --> 00:39:09.291

해오체라는 게 있었어.

00:39:09.391 --> 00:39:12.948

하오체와 해오체의 차이는
결정적으로 해오체는

00:39:13.048 --> 00:39:17.646

이 요라고 하는 게 보조사이기 때문에
뻗을 때 해체가 만들어져야 돼.

00:39:17.746 --> 00:39:18.422

그거야.

00:39:18.522 --> 00:39:23.124

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발음을
할 때는 발음법 하면 또 나오죠.

00:39:23.224 --> 00:39:27.399

이것은 책이오, 책이요.

00:39:27.499 --> 00:39:29.621

발음이 나와요, 이게.

00:39:29.721 --> 00:39:32.880

그러니까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?
아니라고요.

00:39:33.028 --> 00:39:37.594

왜? 이 요가 끝에 와
있으면 해오체여야 하는데

00:39:37.694 --> 00:39:42.396

해오체는 요를 제거해도
돼야 되잖아.

00:39:42.496 --> 00:39:45.341

이것은 책이, 이렇게 단어가 됩니까?
안 되죠.

00:39:45.441 --> 00:39:48.808

이 어휘는 해오체가 올 수
있는 위치가 아니에요.

00:39:48.908 --> 00:39:51.097

무슨 체? 하오체가 와줘야 돼.

00:39:51.197 --> 00:39:53.407

그래서 여러분, 소리가
이것은 책이요,

00:39:53.507 --> 00:39:56.622

이리로 오시오, 이것은 책이
아니요, 라고 발음이 되지만

00:39:56.722 --> 00:39:58.429

이렇게 적어서는 안
된다는 이야기죠.

00:39:58.529 --> 00:40:03.995

어떻게? 이것은 책이오, 이리로
오시오, 이것은 책이 아니오.

00:40:04.095 --> 00:40:08.299

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?
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

00:40:08.399 --> 00:40:15.257

다음, 그런데 연결형에서는
요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요.

00:40:15.357 --> 00:40:19.763

그러니까 종결형이 아니라 연결형에서
요라고 하는 어미가 존재해서

00:40:19.863 --> 00:40:21.215

이게 지금 쉽죠?

00:40:21.315 --> 00:40:24.438

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
붓이요, 또 저것은 먹이다.

00:40:24.538 --> 00:40:28.901

이렇게 했을 때 연결형으로
요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.

00:40:29.001 --> 00:40:30.860

이거를 오로 적을
필요는 없는 거죠.

00:40:30.960 --> 00:40:31.831

그럴 수 없고.

00:40:31.931 --> 00:40:34.050

연결형 어미는 오가 아니라 요예요.

00:40:34.150 --> 00:40:37.343

그래서 서술격 조사 책이다 할 때

00:40:37.443 --> 00:40:41.363

이에서 다 대신에 요를 연결형
어미로 넣어주는 거예요.

00:40:41.463 --> 00:40:46.313

그래서 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
붓이요, 또 저것은 먹이요.

00:40:46.413 --> 00:40:47.836

만약에 종결형을 쓸 때는.

00:40:47.936 --> 00:40:51.829

먹이오, 이렇게 써야
된다는 이야기죠.

00:40:52.960 --> 00:40:55.764

어간의 끝음절이 모음이 'ㅏ, ㅑ'일
때는 어미를 '-아'로 적고

00:40:55.864 --> 00:40:57.962

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
'-어'로 적는다고 했는데

00:40:58.062 --> 00:41:02.796

무조건은 아니라 이거는 대충의
모음조화를 생각하시면 편해요.

00:41:02.896 --> 00:41:07.792

일단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늘
써왔던 거니까 틀릴 리가 없어.

00:41:09.775 --> 00:41:11.160

애는 뭐예요?

00:41:11.260 --> 00:41:16.382

낫다, 라고 하는
단어에서 출발한 거죠?

00:41:16.482 --> 00:41:18.501

그런데 여기에 아랑 연결했을 때

00:41:18.601 --> 00:41:21.147

ㅅ 탈락하면서 나아,
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.

00:41:21.247 --> 00:41:28.801

그래서 나아, 그다음에 나아도,
나아서 이렇게 쓰는 거죠.

00:41:28.901 --> 00:41:48.075

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발
여러분, 이런 거 하지 맙시다.

00:41:48.175 --> 00:41:49.791

그러지 마세요, 제발.

00:41:49.891 --> 00:41:54.055

병을 응애 하면서
낳는 게 아니잖아요.

00:41:54.155 --> 00:41:55.494

두 개가 쓰일 수 있잖아요.

00:41:55.594 --> 00:41:57.224

위에 거는 병이 생기는 거야.

00:41:57.324 --> 00:42:00.427

그다음에 밑에 거는
병이 회복된 거야.

00:42:00.527 --> 00:42:07.407

그런데 이 두 단어에서
중결어미를 '다'가 아니라

00:42:07.507 --> 00:42:12.302

만약에 애네들이 전부
다 '아'를 쓰잖아요.

00:42:15.838 --> 00:42:19.039

잡아, 보아, 이런 식으로
해서 쓰는 것처럼.

00:42:19.139 --> 00:42:21.573

그러면 애는 어떻게
되는 거예요, 결국?

00:42:21.673 --> 00:42:26.093

병이 나아.
그런데 이렇게 써요? 안 쓰죠.

00:42:26.193 --> 00:42:27.354
동음탈락 현상이 일어나죠.

00:42:27.454 --> 00:42:29.953
그래서 어떻게 되죠? 병이 나.

00:42:30.053 --> 00:42:31.074
너 때문에 병이 나.

00:42:31.174 --> 00:42:32.098
이렇게 쓰는 거죠?

00:42:32.198 --> 00:42:34.441
병이 나아가 아니라 병이
나, 이렇게 쓰는 겁니다.

00:42:34.541 --> 00:42:36.885
그런데 애는 어때요?

00:42:36.985 --> 00:42:42.799
ㅅ 받침이 규칙용언이냐,
불규칙용언이냐에 따라서

00:42:42.899 --> 00:42:45.758
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탈락하기도
하고 안 탈락하기도 해.

00:42:45.858 --> 00:42:49.115
예를 들면 씻다 같은
경우에는 뒤에 어가 붙으면

00:42:49.215 --> 00:42:53.438
애는 모음 어미가 붙었을 때
ㅅ이 안 탈락하는 규칙용언인지라

00:42:53.538 --> 00:42:54.871
씻어, 이렇게 되는 거 맞죠?

00:42:54.971 --> 00:42:57.605
그런데 애는 낮아라고 안 하잖아요.

00:42:57.705 --> 00:43:01.018
ㅅ 탈락하는 불규칙용언에
해당하거든.

00:43:01.118 --> 00:43:01.873
이해 돼요?

00:43:01.973 --> 00:43:04.679
그러면 애는 결국 어떻게 적어?

00:43:04.779 --> 00:43:07.692
이렇게 적잖아.

00:43:07.792 --> 00:43:14.128
그런데 애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?
그건 아니죠.

00:43:14.228 --> 00:43:16.401
이번에는 병이 나.

00:43:16.501 --> 00:43:18.977
이걸로 인해 병이 나,
이렇게 할 수 없어요.

00:43:19.077 --> 00:43:21.641
뭐라고? 병이 나아, 라고
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지.

00:43:21.741 --> 00:43:26.273
이게 결국 뭐의 원칙이냐면, 원래
단어가 나다에서 출발하는 거라면

00:43:26.373 --> 00:43:27.894
최종이 이렇게 나오지만,

00:43:27.994 --> 00:43:31.083
애를 더 이상 줄였을 때는
애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

00:43:31.183 --> 00:43:33.577
그래서 결국 애, 병이 낫다.

00:43:33.677 --> 00:43:36.642
회복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
이렇게 꼭 써줘야 돼.

00:43:36.742 --> 00:43:39.220
결론적으로 동음탈락을
시켜주면 안 돼요.

00:43:39.320 --> 00:43:40.684
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?

00:43:40.784 --> 00:43:43.070
병이 나아, 이제 곧 병이 나아.

00:43:43.170 --> 00:43:46.180
그다음에 이진 너 때문에
병이 생겨, 이렇게 할 때.

00:43:46.280 --> 00:43:49.770
원칙상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.

00:43:49.870 --> 00:43:53.784
결국 애가 지금 이렇게 적었다는
이야기는 뭐의 뜻이라는 거예요?

00:43:53.884 --> 00:43:56.533
병이 생기다의 나다가 아니라
뭐라는 이야기입니까?

00:43:56.633 --> 00:43:58.494
낫다의 단어예요.

00:43:58.594 --> 00:44:01.452
그래서 병이 나아, 병이
나아도, 병이 나아서.

00:44:01.552 --> 00:44:03.026
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죠?

00:44:03.126 --> 00:44:05.540
사실은 지금 모습조화를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44:05.640 --> 00:44:07.635
아 계열이기 때문에 아를 쓴다.

00:44:07.735 --> 00:44:11.713
야 양성이죠? 오 양성이죠?
오 양성입니다.

00:44:11.813 --> 00:44:13.524
그래서 아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고

00:44:13.624 --> 00:44:16.807
이번에는 어로 적는 경우.

00:44:16.907 --> 00:44:18.668
개어, 꺾어, 되어, 베어.

00:44:18.768 --> 00:44:23.161
그런데 이걸 굳이 봐야
될 이유가 없어요.

00:44:23.261 --> 00:44:24.643
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.

00:44:24.743 --> 00:44:28.747
여러분이 혹시 이걸 날이 개아서,
이렇게 쓰지 않잖아요.

00:44:28.847 --> 00:44:32.282
그러니까 꺾어도 보았다,
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?

00:44:32.382 --> 00:44:35.360
다 아는 부분이고.

00:44:35.460 --> 00:44:40.043
아까 전에 '요'의는 경우에는
종결형이 '요'가 아니라고 했잖아요.

00:44:40.187 --> 00:44:42.048
종결형은 오로 끝나는
거라고 했어요.

00:44:42.148 --> 00:44:44.044
연결형이 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

00:44:44.144 --> 00:44:48.120
그런데 애는 어미 뒤에 덧붙는
요는 보조사 요이기 때문에

00:44:48.220 --> 00:44:49.141
그때는 요로 적는다.

00:44:49.241 --> 00:44:56.981
무슨 이야기냐, 이 요가 빠져서

이렇게 말이 되거든요?

00:44:57.081 --> 00:44:58.276

이렇게 적으라는 이야기에요.

00:44:58.376 --> 00:44:59.766

읽어오, 이렇게 적을 수 없습니다.

00:44:59.866 --> 00:45:02.269

읽어요, 라는 이야기는 해요체고

00:45:02.369 --> 00:45:05.952

요를 뺏을 때 '읽어'가 말이 되기
때문에 이때는 요를 쓰면 돼요.

00:45:06.052 --> 00:45:09.717

그러니까 해요체에서는 요가 빠져서
해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

00:45:09.817 --> 00:45:13.184

요가 올 자리인지 오가 올
자리인지는 빼보시면 아는 거예요.

00:45:13.284 --> 00:45:14.914

그래서 뺏을 때 읽어.

00:45:15.014 --> 00:45:17.499

내가 어찌 참으리요,
어찌 참으리. 가능하죠?

00:45:17.599 --> 00:45:19.554

그러면 애는 요를 쓰면
된다는 이야기죠.

00:45:19.654 --> 00:45:21.284

좋지요, 좋지, 되죠?

00:45:21.384 --> 00:45:23.219

그러면 애는 요를 쓰면
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45:23.319 --> 00:45:24.401

그래서 조사 '요'.

00:45:24.501 --> 00:45:29.518

아까 전에는 어미 '오',
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.

00:45:30.561 --> 00:45:33.481

다음과 같은 용언들은
어미가 바뀔 경우

00:45:33.581 --> 00:45:36.498

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
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.

00:45:36.598 --> 00:45:40.019

지금 18항에 나와 있는
이 내용 있잖아요.

00:45:40.119 --> 00:45:42.524

이거 안 해, 왜 안 해?

00:45:42.624 --> 00:45:46.534

여러분,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

00:45:46.634 --> 00:45:47.637

결국 보세요.

00:45:47.737 --> 00:45:49.296

르이 줄어든다.

00:45:49.396 --> 00:45:59.585

ㄴ이나 ㄹ이나 ㅅ이나 ㅇ가 왔을 때 빠지는 현상, ㄹ 규칙탈락 현상.

00:45:59.685 --> 00:46:06.608

다만 말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르이 이런 단어에서 빠진 대로 적겠다는 이야기.

00:46:06.708 --> 00:46:09.939

이거 원칙상 말지못하다고 안 하고 말지 않다라고 안 하고

00:46:10.039 --> 00:46:11.007

하다말다, 라고 안 하고

00:46:11.107 --> 00:46:13.196

내다 먹다마다,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죠.

00:46:13.296 --> 00:46:15.665

먹자말자가 아니라 먹자마자,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46:15.765 --> 00:46:16.983

이건 많이 아는 단어.

00:46:17.083 --> 00:46:20.736

~하지, 이거는 봐야겠다.

00:46:22.436 --> 00:46:25.083

이거는 여러분이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

00:46:25.183 --> 00:46:28.186

먹지 마라, 부정하고 싶어.

00:46:28.286 --> 00:46:29.728

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?

00:46:29.828 --> 00:46:33.917

먹지말다, 라는 단어예요.

00:46:34.017 --> 00:46:35.694

여기 보조용언이 말다, 라는 단어예요.

00:46:35.794 --> 00:46:36.808

그러면 명령을 내려요.

00:46:36.908 --> 00:46:40.295
명령을 내릴 때 해라체를 썼을 때는

00:46:40.395 --> 00:46:42.460
명령 어미 아라라, 이렇게
쓰면 되는 거예요.

00:46:42.560 --> 00:46:49.795
그다음에 먹지, 그다음에
해라체, 해체를 쓰게 되면.

00:46:49.895 --> 00:46:52.452
비교해줄게요.

00:46:56.192 --> 00:46:57.356
여러분, 이렇게 명령 내리잖아요.

00:46:57.456 --> 00:46:58.904
저거 잡아라, 저거 잡아.

00:46:59.004 --> 00:46:59.721
이렇게 쓰지 않습니까?

00:46:59.821 --> 00:47:00.453
똑같아요.

00:47:00.553 --> 00:47:06.718
용언의 어간이 말다이기 때문에 물론
애는 무조건 보조용언으로만 쓰이니까.

00:47:06.847 --> 00:47:08.306
물론 본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다.

00:47:08.406 --> 00:47:10.839
예를 들면 내가 말을 말아야지,
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.

00:47:10.939 --> 00:47:12.930
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주로
보조용언, 부정할 때.

00:47:13.030 --> 00:47:15.354
말아라, 말아.
이렇게 되면 되잖아요.

00:47:15.454 --> 00:47:17.738
된다니까요? 이게 원칙이에요.

00:47:17.838 --> 00:47:20.454
그런데 이 말다, 라는
단어가 좀 특수해서

00:47:20.554 --> 00:47:24.176
르을 빼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.

00:47:24.276 --> 00:47:24.776
이해되세요?

00:47:24.876 --> 00:47:29.122
그래서 르을 빼주면
어떤 일이 생겨?

00:47:29.222 --> 00:47:30.450
동음탈락이 생겨.

00:47:30.550 --> 00:47:31.670
그래서 어떻게 돼?

00:47:31.770 --> 00:47:33.278
결국 이렇게 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0:47:33.378 --> 00:47:34.877
먹지 마라, 이게 나오는 거고.

00:47:34.977 --> 00:47:36.586
그다음에 이것도
마찬가지, ㄹ이 빠져.

00:47:36.686 --> 00:47:37.657
그러면 어떻게 되죠?

00:47:37.757 --> 00:47:40.804
마아, 그러면 동음탈락 생겨야 되죠, 어떻게?
마.

00:47:40.904 --> 00:47:41.633
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

00:47:41.733 --> 00:47:45.367
그래서 여러분, 이거 돼요.
안 되는 거 아니에요.

00:47:45.467 --> 00:47:46.603
원칙인데 왜 안 돼.

00:47:46.703 --> 00:47:53.091
되고, 애는 특수하게 말다의 경우에는
이렇게 가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.

00:47:53.191 --> 00:47:55.277
그리고 원칙은 이거예요.

00:47:55.377 --> 00:47:57.414
그래서 이렇게 적어준다는 이야기.

00:47:57.514 --> 00:48:02.044
그다음, 나머지 ㅅ이
탈락하는 경우.

00:48:02.144 --> 00:48:03.728
ㅅ 불규칙 용언
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0:48:03.828 --> 00:48:08.571
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씻다와 벗다의
경우에는 ㅅ이 탈락하지 않지만

00:48:08.671 --> 00:48:11.340
이런 굶다, 낮다,
있다, 짓다의 경우에는

00:48:11.440 --> 00:48:15.447

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 ㅅ이 빠지는
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죠?

00:48:15.547 --> 00:48:18.284
다음에 어간의 끝
'ㅎ'이 줄어들 것.

00:48:18.384 --> 00:48:19.521
ㅎ 불규칙 용언.

00:48:19.621 --> 00:48:21.059
어간 어미 불규칙 용언이었죠?

00:48:21.159 --> 00:48:27.758
그래서 어간 쪽에 ㅎ 빠질 때 있고
어미 쪽에 변화들이 막 생깁니다.

00:48:27.858 --> 00:48:30.972
이런 걸 ㄷ탈락, ㄹ탈락 규칙.

00:48:31.072 --> 00:48:32.746
ㄷ탈락 불규칙.

00:48:32.846 --> 00:48:34.676
ㄷ이 ㄹ로 바뀐다, 이거 뭐예요?

00:48:34.776 --> 00:48:36.872
ㄷ, 어간 불규칙이죠?

00:48:36.972 --> 00:48:38.159
어간 쪽에 ㄷ이 ㄹ로.

00:48:38.259 --> 00:48:39.799
이건 무조건 그러는 거 아니에요.

00:48:39.899 --> 00:48:43.478
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
걷다 할 때는 걸어.

00:48:43.578 --> 00:48:46.009
듣다 할 때는 들어,
이렇게 되는 거고.

00:48:46.109 --> 00:48:49.395
묻다 할 때는 물어보다 할 때
물어, 이렇게 되는 거지만

00:48:49.486 --> 00:48:53.220
예를 들면 땅에 묻다 같은 경우에는
물어가 아니라 묻어, 이렇게 되면서

00:48:53.329 --> 00:48:55.984
ㄷ이 안 바뀌는 게 있고
ㄷ이 ㄹ로 바뀌는 게 있고

00:48:56.084 --> 00:48:57.125
규칙, 불규칙 나뉘죠.

00:48:57.225 --> 00:49:00.464
이거 어디서 공부하냐고, 용언
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.

00:49:00.564 --> 00:49:04.845

선생님, 이게 뭔가요? 이러면
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.

00:49:04.945 --> 00:49:09.532

장담하건대 선생님이 20강으로 만들어놓은
이 현대문법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요?

00:49:09.632 --> 00:49:11.592

정확하게 모든 걸 다
갖췄기 때문에.

00:49:11.692 --> 00:49:13.018

그래서 내가 모르는
게 있다고 그러면

00:49:13.118 --> 00:49:15.309

다시 강의를 듣고 다시
공부하시면 돼요.

00:49:15.409 --> 00:49:18.182

그래서 이 용언의 활용
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

00:49:18.328 --> 00:49:20.318

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데

00:49:20.418 --> 00:49:23.331

용언의 활용이 있어서 이렇게
빠지는 건 빠지는 대로 적고

00:49:23.431 --> 00:49:26.416

교체가 되면 교체가 되는 대로
적고 하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라서

00:49:26.516 --> 00:49:29.236

이거를 열심히 다시
할 필요는 없죠.

00:49:29.336 --> 00:49:32.471

ㅂ의 어간이 ㅅ나
ㅌ로 바뀌는 현상.

00:49:32.571 --> 00:49:35.915

그래서 대부분은 불규칙
용언일 경우 ㅌ로 바뀌는데

00:49:36.015 --> 00:49:38.189

ㅅ로 바뀌는 단어가 딱
2개밖에 없어요.

00:49:38.289 --> 00:49:38.883

돕다, 곱다.

00:49:38.983 --> 00:49:39.962

이것도 쓸데없어.

00:49:40.062 --> 00:49:41.598

돕과 곱과 같은 단음절.

00:49:41.698 --> 00:49:43.467

그냥 들밖에 없어, 실제로.

00:49:43.567 --> 00:49:46.901

그래서 돕다와 곱다의
경우에는 도와, 고와.

00:49:47.001 --> 00:49:52.111

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
말고는 다 위로 간다는 거니까

00:49:52.211 --> 00:49:55.477

가끔가다 가까와, 이러면 안 돼요.

00:49:55.577 --> 00:49:57.832

가까워,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.

00:49:57.932 --> 00:49:59.143

괴로와서, 안 돼요.

00:49:59.243 --> 00:50:02.969

괴로워서, 이렇게
간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0:05.772 --> 00:50:08.763

여불규칙이라고 하죠?

00:50:08.863 --> 00:50:12.693

그다음에 러불규칙용언이죠.

00:50:12.793 --> 00:50:17.870

그다음에 애네는 르불규칙용언이고요.

00:50:17.970 --> 00:50:21.722

이렇게 해서 불규칙, 규칙에
대한 용언 정리는 되어있었고요.

00:50:21.822 --> 00:50:25.155

접미사가 붙어서 된말도 형태를
지켜주겠다는 이야기예요.

00:50:25.255 --> 00:50:28.090

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단어의 길에서

00:50:28.190 --> 00:50:30.903

명사와 접미사 이가
붙었을 때 유지해준다.

00:50:31.003 --> 00:50:32.806

소리 나는 대로 적지
않는다는 이야기죠.

00:50:32.906 --> 00:50:36.212

미닫다, 물론 밀다에서의
르이 빠진 현상인데

00:50:36.312 --> 00:50:38.165

이게 왜 그런지는
뒤에서 설명해줍니다.

00:50:38.265 --> 00:50:40.051

빠진 대로 적는다는
규칙이 또 있어요.

00:50:40.151 --> 00:50:41.543
벌다에서 이 더해주고.

00:50:41.643 --> 00:50:47.888
이번에는 명사형 어미로 '-음/-ㅁ'이
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로.

00:50:47.988 --> 00:50:50.827
다시 할게요.
명사형 어미가 아니라 명사화 접미사.

00:50:50.927 --> 00:50:55.119
왜냐하면, 이런 거 주의하셔야
된다고 했잖아요.

00:50:55.219 --> 00:51:02.498
얼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
얼음을 넣어라.

00:51:02.598 --> 00:51:07.190
이거는 완전히 명사가 된 거기
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만

00:51:07.290 --> 00:51:12.626
예를 들면 얼음이, 얼음.
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.

00:51:12.726 --> 00:51:15.127
왜냐하면 이걸 명사지만 이걸
명사가 아니기 때문에.

00:51:15.227 --> 00:51:19.777
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일 때는 음을
쓸 수 없고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.

00:51:19.877 --> 00:51:22.832
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고.

00:51:22.932 --> 00:51:25.237
또 '-이'가 붙어서
부사가 된 것들.

00:51:25.337 --> 00:51:29.448
'-히'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들 전부
다 형태를 유지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.

00:51:29.548 --> 00:51:34.506
그래서 쭉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소리 나는
대로 적었을 때 헛갈리는 게 있을까.

00:51:34.606 --> 00:51:37.828
이런 거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.

00:51:37.928 --> 00:51:39.480
모르는 어휘들도 한번 보시고.

00:51:39.580 --> 00:51:41.029
작히 같은 거는 이럴 때 써요.

00:51:41.129 --> 00:51:42.757
어휴, 작히 좋겠습니까?

00:51:42.857 --> 00:51:46.443
얼마나 좋겠습니까,
이런 의미에서 쓰고요.

00:51:46.543 --> 00:51:51.660
다음에 이거는 뭐냐면, '-이'나
'-음'이 붙었다는 거예요, 과정은.

00:51:51.760 --> 00:51:55.918
그런데 이게 옛날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?
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

00:51:56.018 --> 00:51:59.175
옛날 역사적 과정 속에서
생긴 단어들이거든요.

00:51:59.275 --> 00:52:02.506
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어간의
원형하고 많이 멀어졌다고 보고

00:52:02.606 --> 00:52:05.087
그냥 소리 나는 대로
적렸다는 이야기거든요.

00:52:05.187 --> 00:52:09.979
우리 지난 시간에 음, 이
판별하면서 동음이의어할 때

00:52:10.079 --> 00:52:12.547
다리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
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.

00:52:12.647 --> 00:52:14.164
이때 다리가 뭐였습니까?

00:52:14.264 --> 00:52:16.282
이어다 붙이는
머리를 뜻하는 다리.

00:52:16.382 --> 00:52:18.853
그런데 이게 달다, 라고
하는 단어였던 건데

00:52:18.953 --> 00:52:22.247
그 달다, 라고 하는 단어에
'이'가 붙어서 달이.

00:52:22.347 --> 00:52:24.328
그게 소리 나는 대로
다리로 가버린 거예요.

00:52:24.428 --> 00:52:27.547
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?
우리는 원형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죠.

00:52:27.647 --> 00:52:33.501
그런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

적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바뀔 겁니다.

00:52:33.601 --> 00:52:35.465
다음요.

00:52:36.652 --> 00:52:39.947
어간에 '-이'나 '-음' 이외의
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

00:52:40.047 --> 00:52:43.183
다른 품사가 된 것은 원형을
적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

00:52:43.283 --> 00:52:45.978
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

00:52:46.078 --> 00:52:49.291
여기 무덤 같은 경우에
결국 과거 과정을 보면

00:52:49.391 --> 00:52:50.844
묻다, 라는 단어랑
관련이 있잖아요.

00:52:50.944 --> 00:52:53.517
그런데 여기에 어떤 어미가
더해졌기에 이렇게 되었을까.

00:52:53.617 --> 00:53:00.973
어미라고 하는 접미사가 있었다는
거예요, 명사와 접미사가.

00:53:01.073 --> 00:53:02.397
지금은 존재하지 않는.

00:53:02.497 --> 00:53:06.176
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,
기, 음만 기억하면 되는데

00:53:06.276 --> 00:53:07.748
옛날에는 좀 다양했던 모양이에요.

00:53:07.848 --> 00:53:11.643
이것도 주검은 죽다에다
시체를 뜻하는 거거든요.

00:53:11.743 --> 00:53:12.955
어미라고 하는 접미사.

00:53:13.055 --> 00:53:14.179
소리 나는 대로 적어지는 거죠.

00:53:14.279 --> 00:53:15.642
왜? 이거 지금 없으니까.

00:53:15.742 --> 00:53:17.012
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.

00:53:17.112 --> 00:53:18.885
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
어떻게 됐겠습니까?

00:53:18.985 --> 00:53:24.635
쓰레기는 쓸다에 예기라고 하는 이러한
접미사가 있었던 거야, 옛날에.

00:53:24.735 --> 00:53:27.488
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없으니까
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린다.

00:53:27.588 --> 00:53:30.672
이런 원칙들이에요.

00:53:30.772 --> 00:53:32.873
부사가 된 것들도 비슷한 겁니다.

00:53:32.973 --> 00:53:35.645
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.

00:53:35.745 --> 00:53:37.277
넘어갑니다.

00:53:37.377 --> 00:53:40.699
명사 뒤에 '-이'가 붙어서 된 말은
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00:53:40.799 --> 00:53:47.797
여기 뒤에 '이'나 '히'가 어떤 때
붙는지는 뒤에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.

00:53:47.897 --> 00:53:49.186
이것도 넘어갑니다.

00:53:49.286 --> 00:53:51.551
이것도 '-이' 이외의
다른 접미사.

00:53:51.651 --> 00:53:53.512
옛날에는 있었던 접미사들이 있는데

00:53:53.612 --> 00:53:56.045
이런 것들 밝히어 적지
않겠다는 이야기에요.

00:53:56.145 --> 00:54:00.687
예를 들면 앞+아리라는
접미사가 있었던 거야.

00:54:00.787 --> 00:54:05.227
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소리 나는
대로 이파리, 이렇게 적혀진 거죠.

00:54:05.327 --> 00:54:07.420
집+웅=지붕, 샷+아구니=사타구니.

00:54:07.520 --> 00:54:09.612
이런 것들.

00:54:09.712 --> 00:54:11.278
이건 나올 게 아니야, 됐어요.

00:54:11.378 --> 00:54:16.021

21항,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
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왔을 때

00:54:16.121 --> 00:54:19.330
형태를 유지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4:19.430 --> 00:54:20.560
문제없죠?

00:54:20.660 --> 00:54:24.011
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휘들을 좀
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00:54:24.111 --> 00:54:25.473
예를 들면 이런 거.

00:54:25.573 --> 00:54:31.926
굵다랗다, 넓적하다, 높다랗다
이런 어휘들을 한번 봐주시고요.

00:54:32.831 --> 00:54:34.824
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.

00:54:34.924 --> 00:54:36.993
겹받침의 끝소리가
드러나지 아니하는 것.

00:54:37.093 --> 00:54:41.986
무슨 소리냐, 원래 널따랗다는
넓에서 온 단어잖아요.

00:54:42.086 --> 00:54:43.198
그런데 ㅂ 어디 갔어?

00:54:43.298 --> 00:54:45.064
겹받침의 끝소리가 지금
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4:45.164 --> 00:54:47.539
그래서 이런 거는 소리
나는 대로 널따랗다.

00:54:47.639 --> 00:54:49.704
이렇게 써주겠다는 이야기죠.

00:54:49.804 --> 00:54:52.175
얇따랗다, 이런 것들.

00:54:52.275 --> 00:54:54.842
다음, 넓치, 울무,
골막하다, 납작하다.

00:54:54.942 --> 00:54:57.916
이런 거는 어원이 분명하지
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졌으니까.

00:54:58.016 --> 00:54:59.761
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.

00:54:59.861 --> 00:55:01.451
넓치가 광어거든요.

00:55:01.551 --> 00:55:03.713
그러면 광어가 넓게 생겼잖아요.

00:55:03.813 --> 00:55:08.012
그러니까 넓치, 이렇게
하면 안 되냐.

00:55:08.112 --> 00:55:09.570
그런데 확실하지 않대요.

00:55:09.670 --> 00:55:13.072
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
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겠다고 하는

00:55:13.172 --> 00:55:15.348
그런 원칙을 적용했다는데요.

00:55:15.448 --> 00:55:18.903
22항 갑니다.

00:55:19.003 --> 00:55:21.001
이런 것들 원칙대로
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0:55:21.101 --> 00:55:23.927
전혀 어려움 없어요.

00:55:24.027 --> 00:55:24.788
중간에 접미사들.

00:55:24.888 --> 00:55:27.067
다만 '-이-, -히-,
-우-'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

00:55:27.167 --> 00:55:30.841
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소리
나는 대로 적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5:30.941 --> 00:55:36.538
그래서 예를 들면 거두다 같은 경우에는
걸다에 우가 더해진 형태였다는 거죠.

00:55:36.638 --> 00:55:40.436
그런데 이게 본뜻에서
이미 멀어졌기 때문에.

00:55:40.536 --> 00:55:42.387
멀어졌는지는 우리가
판단하는 건 아니고.

00:55:42.487 --> 00:55:45.595
그래서 이런 어휘들 좀
봐주시고 비교해주시면 돼요.

00:55:45.695 --> 00:55:47.947
'치-, -뜨리-, -트리-'가
붙어도 마찬가지.

00:55:48.047 --> 00:55:50.495
아까 전에 '-기-, -리-, -이-, -히,

-구-, -우-, -추- 같은 경우에는

00:55:50.595 --> 00:55:53.321

사동이나 피동을 만들어주기
위한 방식이었잖아요.

00:55:53.421 --> 00:55:58.749

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'-치-,
-뜨리-, -트리-'는 어떤 기능이죠?

00:55:58.849 --> 00:56:01.390

이런 접미사 붙으면?
강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.

00:56:01.490 --> 00:56:06.402

그래서 덮다의 덮치다,
그다음에 떠받치다.

00:56:06.502 --> 00:56:08.709

또 뜨리나, 트리나 항상
이렇게 치환이 가능해요.

00:56:08.809 --> 00:56:12.410

부딪뜨리다, 부딪트리다 이런
식으로 해서 바뀌 쓸 수 있어요.

00:56:12.510 --> 00:56:15.581

'-엮-, -읍-, -브-'라고
하는 접미사가 있었습시다.

00:56:15.681 --> 00:56:17.828

그런데 이런 놈들도
지금은 없기 때문에

00:56:17.928 --> 00:56:19.987

이제 소리 나는 대로
적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6:20.087 --> 00:56:24.589

그래서 믿음성이 있다고 할 때 믿다에
엮이 붙었을 때 ㅄ이 넘어가 버리죠.

00:56:24.689 --> 00:56:30.357

그래서 미덥다, 또는 웃읍다 였는데
우습다 하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.

00:56:30.457 --> 00:56:35.090

다음, '-하다'나 '-거리다'가 붙는
어근에 '-이'가 붙어서 적었다.

00:56:35.190 --> 00:56:37.547

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형
적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6:37.647 --> 00:56:41.341

그래서 깔쭉하다, 깔쭉거리다,
꿀꿀 거리가, 눈 깜짝하다.

00:56:41.441 --> 00:56:42.885

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.

00:56:42.985 --> 00:56:46.244

그런데 그런 하다나 거리다를
빠버린 상태로 이가 붙을 때는

00:56:46.344 --> 00:56:50.391

형태를 유지해주지 이렇게 소리 나는
대로 적지 말라는 이야기고요.

00:56:50.491 --> 00:56:54.577

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
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00:56:54.677 --> 00:56:59.765

이거 갓뚜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
상표명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.

00:56:59.865 --> 00:57:01.844

애들이 가지고 노는
장난감 있잖아요.

00:57:01.944 --> 00:57:03.507

밀면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거.

00:57:03.607 --> 00:57:07.629

그래서 오뎅하다는 단어에서 하다가
빠지고 이가 붙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

00:57:07.729 --> 00:57:11.903

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꼭
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.

00:57:13.072 --> 00:57:16.488

그러나 만약 '-하다'나 '-거리다'가
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고 한다면

00:57:16.588 --> 00:57:18.565

그때는 소리 나는 대로
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0:57:18.665 --> 00:57:21.471

예를 들면 개굴하다나 개굴거리다,
라는 단어는 없어요.

00:57:21.571 --> 00:57:24.698

또 귀똥거리다, 귀똥하다,
이런 단어 없습니다.

00:57:24.798 --> 00:57:29.504

이런 단어들에 다른 모습
또는 이 어미 붙었을 때

00:57:29.604 --> 00:57:34.028

소리 나는 대로
적어준다는 이야기에요.

00:57:34.128 --> 00:57:38.056

그래서 쓸 때 개굴이, 이렇게
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.

00:57:38.156 --> 00:57:41.573

선생님이 봤을 때 이 어휘는

좀 외우셔야 돼요.

00:57:41.673 --> 00:57:43.828

꼭 기억하셔야 돼요.

00:57:43.964 --> 00:57:47.240

각쪽도 소리 나게끔
나는 경우도 있고요.

00:57:47.340 --> 00:57:50.202

이런 거 주의하셔야죠?

00:57:50.302 --> 00:57:54.776

이런 거 안 되고
이런 거 안 되고.

00:57:54.876 --> 00:57:57.721

비교하시면 됩니다.

00:57:57.821 --> 00:58:00.730

'거리다'가 붙을 수
있는 시늉말 어근에

00:58:00.830 --> 00:58:03.373

'이다'가 붙어서 된 것도
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00:58:03.473 --> 00:58:05.472

그래서 깜짝거리다,
꾸벅거리다, 울먹거리다,

00:58:05.572 --> 00:58:07.257

들먹거리다, 퍼덕거리다,
번쩍거리다.

00:58:07.386 --> 00:58:10.228

이런 건데 이다, 라고
하는 이진 조사 아니죠?

00:58:10.328 --> 00:58:11.318

접미사 이다였죠?

00:58:11.418 --> 00:58:13.860

그래서 이렇게 깜짝이다,
꾸벅이다, 울먹이다.

00:58:13.960 --> 00:58:16.657

ㄴ처럼 썼다고 생각해 봐.

00:58:16.757 --> 00:58:18.404

정말 너무하다.

00:58:18.504 --> 00:58:22.234

너 차꾸 옛 과거를 들머길 거니?
이렇게 쓴다거나.

00:58:22.334 --> 00:58:25.407

너가 울머졌을 때 난 너무 슬펐어.

00:58:25.507 --> 00:58:26.601

정말 슬프다, 진짜.

00:58:26.701 --> 00:58:30.806
ㄱ처럼 써줘야 되는 거 알죠?

00:58:30.906 --> 00:58:31.668
25항입니다.

00:58:31.768 --> 00:58:34.067
'-하다'가 붙는 어근에 '-히'나
-이'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

00:58:34.167 --> 00:58:37.248
부사에 '-이'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
경우에도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00:58:37.348 --> 00:58:39.998
급하다는 단어에서 하다 빠지고 히.

00:58:40.098 --> 00:58:42.224
꾸준하다에서 하다 빠지고 히.

00:58:42.324 --> 00:58:45.667
도저하다? 여러분 사전에 있어요.

00:58:45.767 --> 00:58:48.265
물론 도저하다와 도저히의
뜻이 다릅니다.

00:58:48.365 --> 00:58:50.506
어휘가, 한자어가
동일한데도 불구하고.

00:58:50.606 --> 00:58:51.630
아무튼 거기서 나온 거예요.

00:58:51.730 --> 00:58:53.456
도저히, 딱하다 딱히.

00:58:53.556 --> 00:58:57.162
어렵듯하다인데 왜 애는 히가
아닙니까, 라고 한다면

00:58:57.262 --> 00:58:58.692
이 원칙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.

00:58:58.792 --> 00:59:00.692
ㅅ 받침 뒤이기 때문인데
이따가 할게요.

00:59:00.792 --> 00:59:05.006
'-하다'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
나는 대로 적어주겠다고 해서 이런 단어.

00:59:05.106 --> 00:59:08.215
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
건 이 단어 같은 거.

00:59:08.315 --> 00:59:11.776
애는 구분 한번 해볼게요.

00:59:17.390 --> 00:59:18.691

둘 다 있잖아.

00:59:18.791 --> 00:59:21.604

그러면 애는 원칙이
어디에서 온 거예요?

00:59:21.704 --> 00:59:29.273

반듯하다는 단어인데 이
반듯하다에서 하다가 빠지고

00:59:29.373 --> 00:59:30.584

원래 히가 와야 되거든요.

00:59:30.684 --> 00:59:32.733

그런데 ㅅ 받침 뒤에는
이가 오게끔 되어있어요.

00:59:32.833 --> 00:59:35.520

그래서 이렇게 와서
부사가 된 높이고.

00:59:35.620 --> 00:59:37.965

이건 아예 소리 나는
대로 적혀진 원칙 부사.

00:59:38.065 --> 00:59:39.584

원래 그냥 이런 단어가
있다는 이야기죠.

00:59:39.684 --> 00:59:40.316

뜻 다르죠?

00:59:40.416 --> 00:59:45.464

이건 반듯하다에서 온 거니까 반듯이
앉아라 할 때는 이걸 써줘야 되겠고.

00:59:45.564 --> 00:59:48.558

그다음에 틀림없이 꼭의
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

00:59:48.658 --> 00:59:51.739

반드시 합격하겠다, 라고 하며
밑에 거를 써주는 거예요.

00:59:51.839 --> 00:59:53.608

이런 거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요.

00:59:53.708 --> 00:59:58.179

이런 것도 비슷한 게
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.

01:00:05.341 --> 01:00:07.298

애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?

01:00:07.398 --> 01:00:10.871

지긋하다에서 온 단어예요.

01:00:10.971 --> 01:00:13.171

그러니까 이건 나이가
좀 들었다고 할 때

01:00:13.271 --> 01:00:18.945
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눈을
지그시, 살짝 힘을 주다는 뜻이죠?

01:00:19.045 --> 01:00:20.481
지그시 감으셨다.
이럴 때.

01:00:20.581 --> 01:00:21.419
그래서 단어가 좀 다르죠?

01:00:21.519 --> 01:00:24.916
그래서 둘 다 소리 나는
대로 적는 단어가 있고

01:00:25.016 --> 01:00:29.057
하다 구성에서 빠지고 이 같은 거
붙는 경우는 원칙을 지켜주고,

01:00:29.157 --> 01:00:31.116
그 형태를 유지해준다,
이런 이야기예요.

01:00:31.216 --> 01:00:34.987
그래서 기억하시고요.

01:00:35.087 --> 01:00:36.925
'-하다'나 '-없다'가
붙어서 된 용언은

01:00:37.025 --> 01:00:39.737
그 '-하다'나 '-없다'를
밝히어 적는다.

01:00:39.837 --> 01:00:44.544
딱 또는 술, 착,
טיפ 이런 단어들.

01:00:44.644 --> 01:00:49.332
꼭하다, 겨울 날씨치고 좀
따뜻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.

01:00:49.432 --> 01:00:52.749
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태
유지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.

01:00:52.849 --> 01:00:55.792
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.

01:00:55.892 --> 01:00:59.356
단어가 합성어 됐다고 했을 때
어휘가 변하면 안 돼요.

01:00:59.456 --> 01:01:01.218
형태를 유지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01:01.318 --> 01:01:03.335
그다음에 파생어가 되었다.

01:01:03.435 --> 01:01:05.124
역시 형태 유지해주라는 이야기죠.

01:01:05.224 --> 01:01:08.500

예를 들면 물난리 같은
경우에 합성어죠?

01:01:08.600 --> 01:01:10.852

꽃잎 합성어, 젓몐살 합성어.

01:01:10.952 --> 01:01:12.155

이런 것들 형태 유지해주고.

01:01:12.255 --> 01:01:13.458

또 홀, 접두사.

01:01:13.558 --> 01:01:16.576

파생어 만들어지지만, 형태
유지해준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

01:01:16.676 --> 01:01:20.438

예들 충분히 많이 나왔죠?

01:01:20.538 --> 01:01:24.037

어원이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
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.

01:01:24.137 --> 01:01:26.698

어원이 분명하다는 건
무슨 소리냐면요.

01:01:26.798 --> 01:01:30.709

이 할아버지나 할아범에서의
이 할은 원래 한이에요.

01:01:30.809 --> 01:01:34.498

그래서 크다,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
옛 과거 형태의 한에서 온 건데

01:01:34.598 --> 01:01:37.620

그래서 옛날 형식을 보면
한아버지, 한아범.

01:01:37.720 --> 01:01:39.761

이런 단어들을 볼 수
있음에도 불구하고

01:01:39.861 --> 01:01:41.667

지금 소리가 할로 바뀌었으니까

01:01:41.767 --> 01:01:44.489

그냥 바뀐 대로 적겠다고
하는 내용이고요.

01:01:44.589 --> 01:01:47.037

또 밑에 어원이
분명하지 아니한 것은

01:01:47.137 --> 01:01:50.598

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
나는 대로 적겠다는 이야기인데

01:01:50.698 --> 01:01:54.954

그래서 여러분이 챙겨주셔야
되는 게 이 단어예요, 며칠.

01:01:55.054 --> 01:01:56.278
오해하면 안 됩니다.

01:01:56.378 --> 01:02:05.268
그러니까 이게 며칠이나 걸렸어,
이런 식으로 할 때 이 단어잖아요.

01:02:05.368 --> 01:02:08.121
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
적겠다는 이야기인데.

01:02:08.221 --> 01:02:11.372
선생님, 그러면 이건 언제 써요,
라는 식의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

01:02:11.472 --> 01:02:14.045
안 써요, 절대 안 씁니다.

01:02:14.145 --> 01:02:16.700
무조건 이거로만 가는 거
꼭 기억하셔야 돼요.

01:02:16.800 --> 01:02:22.602
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이 몇 월
며칠이야, 라고 물어볼 때도

01:02:22.702 --> 01:02:25.521
이렇게 써주는 거예요.

01:02:25.621 --> 01:02:27.777
이미 굳어진 단어, 한
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1:02:27.877 --> 01:02:33.647
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어원이 분명한
건데 왜 분명하지 않다고 한 겁니까.

01:02:33.747 --> 01:02:36.918
며칠에서 온 거죠,
이게 넘어온 거지.

01:02:37.018 --> 01:02:41.522
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,
이제 이런 원리가 있어요.

01:02:41.622 --> 01:02:43.744
애가 진짜 이거 맞아?

01:02:43.844 --> 01:02:46.816
만약에 애가 맞다면
이런 일이 생겨야 돼.

01:02:46.916 --> 01:02:53.663
이 일은 실질적인 형태소기 때문에
이 뜻이 그냥 연음될 수 없고

01:02:53.763 --> 01:02:56.513
자체변화가 된 다음에 연음이

돼야 되지 않겠어?

01:02:56.613 --> 01:02:59.290
그러면 애는 츠이 어떻게 되겠어요?

01:02:59.390 --> 01:03:01.030
ㄷ으로 변화가 되겠죠?

01:03:01.130 --> 01:03:06.130
그다음에 ㄷ이 넘어간다고
치면 며칠이나

01:03:06.230 --> 01:03:09.154
여기 ㄴ 첨가까지
일어나면 먼날이라.

01:03:09.254 --> 01:03:11.552
이런 식의 발음이 나왔어야
되는 거 아니야?

01:03:11.652 --> 01:03:14.506
그런데 왜 며칠이라는
발음이 나왔게?

01:03:14.606 --> 01:03:16.437
여기서 온 거라고 보기는
좀 어렵지 않아?

01:03:16.537 --> 01:03:20.686
이런 논리였어요.

01:03:20.786 --> 01:03:24.269
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
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.

01:03:24.369 --> 01:03:26.261
몇 일은 아예 안 씁니다.

01:03:26.361 --> 01:03:31.444
이런 단어도 민간어원설에 의하면
불이나게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?

01:03:31.544 --> 01:03:34.486
부리나케 달리다, 뭔가
바쁘니까 불이나게.

01:03:34.586 --> 01:03:35.483
날 수가 없대요.

01:03:35.583 --> 01:03:37.808
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원
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

01:03:37.908 --> 01:03:40.307
이대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03:40.407 --> 01:03:45.873
다음은 여기 이가 나와 있는데
이빨을 의미하는 거랑.

01:03:45.973 --> 01:03:47.594

요즘에는 워낙 위생이 좋으니까

01:03:47.694 --> 01:03:51.054

옛날에는 머리에 이가 있어서
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.

01:03:51.154 --> 01:03:52.031

그때의 이입니다.

01:03:52.131 --> 01:03:56.206

소리 나는 대로 니로
적겠다는 규칙입니다.

01:03:56.306 --> 01:04:00.753

다음, 끝소리가 'ㄹ'인 말과
판말이 어울릴 적에 'ㄹ' 소리가

01:04:00.853 --> 01:04:03.009

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
나는 대로 적는다.

01:04:03.109 --> 01:04:05.875

그런데 이것도 역사적 과정 속에서
어느 순간부터 ㄹ이 없어진 거죠?

01:04:05.975 --> 01:04:07.537

이런 단어 꽤 많아요.

01:04:07.637 --> 01:04:08.686

많이 보이죠?

01:04:08.786 --> 01:04:12.589

예를 들면 딸+님인데도 불구하고
따님이라고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.

01:04:12.689 --> 01:04:15.425

또 바늘+질인데
바느질이라고 쓰거든요.

01:04:15.525 --> 01:04:18.207

또 쌀+전인데 싸전이라고 하고요.

01:04:18.307 --> 01:04:20.856

활+살인데 화살이라고
하는 이런 형태들.

01:04:20.956 --> 01:04:26.130

그러니까 ㄹ이 빠진 것들은 인정해주고
그런 단어로 구축이 된 겁니다.

01:04:26.230 --> 01:04:27.948

29항은요.

01:04:28.048 --> 01:04:30.079

끝소리가 'ㄹ'인 말과 판말이
어울릴 적에 'ㄹ' 소리가

01:04:30.179 --> 01:04:31.629

'ㄷ' 소리로 나는 것은
'ㄷ'으로 적는다.

01:04:31.729 --> 01:04:34.197

이것도 역사적 과정 속에서
변화가 생긴 건데

01:04:34.297 --> 01:04:36.784

다수이기 때문에
인정해준다는 겁니다.

01:04:36.884 --> 01:04:39.219

예를 들면 바느질고리인데 반질고리.

01:04:39.319 --> 01:04:41.537

사흘날인데 사흘날.

01:04:41.637 --> 01:04:45.828

이게 한술, 두술 뜨다고 할 때 원래
술가락의 기본 단어가 술가락이에요.

01:04:45.928 --> 01:04:49.625

그런데 이 큰이 드으로 바뀐 것도
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죠.

01:04:49.725 --> 01:04:54.523

또 이틀+날인데 이틀날, 이렇게
바뀐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

01:04:54.623 --> 01:04:59.297

이런 유형들을 전부 다
인정하여 적습니다.

01:04:59.397 --> 01:05:01.134

30항, 사이시옷.

01:05:01.234 --> 01:05:03.821

이것도 선생님이 열심히
할 필요는 없는 거죠.

01:05:03.921 --> 01:05:07.277

왜냐하면 우리말 이 사이시옷 조항에
대해서는 언제 공부했습니까?

01:05:07.377 --> 01:05:09.020

음운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

01:05:09.120 --> 01:05:10.149

1강, 2강, 그렇죠?

01:05:10.249 --> 01:05:12.032

2강 부분에 있었던
거로 알고 있습니다.

01:05:12.132 --> 01:05:17.514

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잇소리가 아니라
사이시옷이에요, 표기를 보는 거니까.

01:05:17.614 --> 01:05:21.087

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
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건데

01:05:21.187 --> 01:05:22.960

무조건 적어주는 건 아니었죠?

01:05:23.060 --> 01:05:26.872
앞에 받침이 비어있으면 그때 자리에
시옷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.

01:05:26.972 --> 01:05:29.334
단, 원칙이 더 있었어요.

01:05:29.434 --> 01:05:32.659
결합된 단어의 구성이
고유어가 끼 있어야 되죠?

01:05:32.759 --> 01:05:34.830
그래서 원칙상 보면 이렇게 됩니다.

01:05:34.930 --> 01:05:37.913
단어의 구축이 순 A와 B의 결합이

01:05:38.013 --> 01:05:43.200
둘 다 순우리말이다 하는 경우
대원칙으로 첫 번째 1번.

01:05:43.300 --> 01:05:44.750
그래서 둘 다 고유어인 경우.

01:05:44.850 --> 01:05:47.111
그런데 발음상 3가지죠?

01:05:47.211 --> 01:05:50.486
된소리 발음이 나오거나 ㄴ이
뒹나거나 ㄴ이 두 번 뒹나거나.

01:05:50.586 --> 01:05:53.813
물론 선생님이 설명할 때
ㄴ이 한 번만이라도 그냥 뒹나는 거니

01:05:53.913 --> 01:05:55.634
묶어서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.

01:05:55.734 --> 01:05:58.282
왜? 어차피 두 번
뒹나든 한 번 뒹나든

01:05:58.382 --> 01:06:00.844
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
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.

01:06:00.944 --> 01:06:04.269
그런데 여기 어문규정에는
하나하나 나눠줍니다.

01:06:04.369 --> 01:06:08.086
그래서 첫 번째, 여기에 있는
단어들은 전부 다 한번 보세요.

01:06:08.186 --> 01:06:09.982
두 개의 어휘가 결합이 됐어요.

01:06:10.082 --> 01:06:11.777
합성어입니다.

01:06:11.877 --> 01:06:21.885
나무+가지, 벼+가리, 아래+집,
해+별, 키+값과 같이 합성 명사죠.

01:06:21.985 --> 01:06:28.641
그런데 이렇게 합성 명사가 되었을
때 두 재료가 고유어예요.

01:06:28.741 --> 01:06:31.339
그럴 때 뒤에 있는 게 된소리
발음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.

01:06:31.439 --> 01:06:36.794
나뭇가지, 뒷갈망,
그다음에 벼까리, 부싷돌.

01:06:36.894 --> 01:06:38.661
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.

01:06:38.761 --> 01:06:43.740
애는 뗏가지, 이렇게.

01:06:43.840 --> 01:06:48.896
그래서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뒤에
게 된소리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

01:06:48.996 --> 01:06:52.562
사잇소리가 생겼다고 보고
사이시옷은 적어주는 거죠.

01:06:52.662 --> 01:06:59.438
두 번째, ㄴ이 한번 덧나고
ㄴ이 두 번 덧나는 것.

01:06:59.538 --> 01:07:05.127
아래+니. 아까 이빨은
니라고 적는다고 했어요.

01:07:05.227 --> 01:07:08.039
그런데 발음상 어떻게 된다?
아랜니라고 발음이 되거든요.

01:07:08.139 --> 01:07:10.903
이때 사이시옷 적어준다는
이야기입니다.

01:07:11.003 --> 01:07:13.475
비+물인데 빈물이라고
발음이 되잖아요?

01:07:13.575 --> 01:07:15.985
그러니까 사이시옷
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1:07:16.085 --> 01:07:19.436
이번에는 뒤+일인데 된닐,
ㄴ이 두 번 덧나잖아요?

01:07:19.536 --> 01:07:20.820
사이시옷 적어준다는 이야기죠.

01:07:20.920 --> 01:07:23.461
이런 원칙이었어요.

01:07:23.561 --> 01:07:24.391
기억하시죠?

01:07:24.491 --> 01:07:28.454
그다음에 두 번째, 순우리말은
일단 하나 꺼 있어야 되고

01:07:28.554 --> 01:07:30.495
한자어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.

01:07:30.595 --> 01:07:33.655
어쨌든 A나 B 중의 하나는
고유어면 되잖아요.

01:07:33.755 --> 01:07:35.501
이런 경우로 또 같은 종류.

01:07:35.601 --> 01:07:36.628
된소리 발음이 나온 경우.

01:07:36.728 --> 01:07:38.552
그래서 여기서 는 지금
한자어가 어떤 거겠어요?

01:07:38.652 --> 01:07:39.693
여기는 병이 한자어죠?

01:07:39.793 --> 01:07:43.594
방 한자어죠?
병 한자어죠, 보 한자어죠.

01:07:43.694 --> 01:07:44.630
사자 한자어죠.

01:07:44.730 --> 01:07:48.822
나머지 귀나 머리카
배나 독이나 밥.

01:07:48.922 --> 01:07:49.864
이런 거 고유어잖아요.

01:07:49.964 --> 01:07:52.268
그래서 이렇게 한자어와
고유어가 결합됐을 때

01:07:52.368 --> 01:07:54.625
애네들이 또 된소리
발음이 나오는 거야.

01:07:54.725 --> 01:07:59.649
뱃뽕, 붓뽕, 콧뽕, 땃쫘
이렇게 사이시옷 적어주죠?

01:07:59.749 --> 01:08:05.013
또 이번에는 ㄴ 뺏나고
ㄴ이 두 번 뺏나고.

01:08:05.113 --> 01:08:07.168

다음, 3번 조항은 뭘니까?

01:08:07.268 --> 01:08:08.989

예외로 6개를 딱 잡아준 거죠.

01:08:09.089 --> 01:08:13.989

2음절로 되어있는 한자어에서
된소리 발음이 나왔을 때

01:08:14.089 --> 01:08:17.222

사이시옷 적어주는 그 6개의 원칙.

01:08:17.322 --> 01:08:18.608

공간과 관련된 거 4개.

01:08:18.708 --> 01:08:22.607

그다음에 수와 관련된 거 2개인데
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.

01:08:22.707 --> 01:08:23.922

다 보여줍니다.

01:08:24.022 --> 01:08:28.447

단 여기서 뉘이면 안 돼.

01:08:28.547 --> 01:08:34.926

셋방은 가능하지만 전셋방은
안 된다는 거잖아.

01:08:35.026 --> 01:08:36.401

왜? 3음절이.

01:08:36.501 --> 01:08:40.480

우리 분명 여기 예외는 두 음절로
된 한자어 6개만이에요.

01:08:40.626 --> 01:08:42.985

그러니까 애는 3음절
한자어이기 때문에

01:08:43.085 --> 01:08:47.049

그래서 애는 전셋방 안
되고 어떻게 써야 된단?

01:08:47.149 --> 01:08:48.755

쓰기는 전세방이라고 적어줘요.

01:08:48.855 --> 01:08:50.158

물론 발음은 전셋방이에요.

01:08:50.258 --> 01:08:52.752

그런데 쓰기는 이렇게
써야 된다는 이야기죠.

01:08:52.852 --> 01:09:01.596

또 찻간의 경우에는 인정해줬지만
기차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09:01.696 --> 01:09:07.514

애도 3음절 한자어로 넘어오는 순간
기차간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.

01:09:07.614 --> 01:09:12.394
그래서 이러한 것들 낚으려고 하는
부분들도 잘 넘어가셔야 되겠고요.

01:09:12.494 --> 01:09:15.202
여러분이 많이 헛갈려하는
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,

01:09:15.302 --> 01:09:24.725
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.

01:09:24.825 --> 01:09:27.121
그러니까 애네들은 전부 다
2음절짜리 한자어거든요.

01:09:27.221 --> 01:09:30.099
그런데 6개에 해당하지 않죠?

01:09:30.199 --> 01:09:33.278
그러면 애네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?

01:09:36.928 --> 01:09:38.695
이런 식으로 써줘야
된다는 이야기예요.

01:09:38.795 --> 01:09:41.217
이 단어 모르겠어요?

01:09:41.317 --> 01:09:45.980
보면 회 좋아해요?
아직 안 좋아하나.

01:09:46.080 --> 01:09:48.334
횃집 가면 써 있어요.

01:09:48.434 --> 01:09:51.884
씻가, 이렇게 많이 써 있을 걸요?

01:09:51.984 --> 01:09:52.797
가격이 없죠.

01:09:52.897 --> 01:09:54.081
그 이야기는 뭘니까?

01:09:54.181 --> 01:09:58.632
자연산 이런 거라고 하면 비싸니까 그때그때
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.

01:09:58.732 --> 01:10:02.195
그걸 때 시 자에 값 가 자
써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.

01:10:02.295 --> 01:10:05.872
그런데 이런 단어들 같은
경우에는 2음절 한자어인데

01:10:05.972 --> 01:10:09.484
문제는 뭐냐면, 6개의
조항에 해당하지 않잖아요.

01:10:09.584 --> 01:10:10.692

그러면 이렇게 쓰면
안 되는 거예요.

01:10:10.792 --> 01:10:13.499

발음은 물론 갓수,
씻가, 좇점이에요.

01:10:13.599 --> 01:10:18.782

그런데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
없는 거로 가는 겁니다.

01:10:18.882 --> 01:10:26.129

다음 31항,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
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.

01:10:26.229 --> 01:10:28.306

이거 역사적 과정
속에서 있었던 거죠?

01:10:28.406 --> 01:10:36.551

예를 들면 해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
당해 처음 난 쌀이라는 뜻인데

01:10:36.651 --> 01:10:40.701

여기에는 이 쌀이 원래
옛날에 단어를 보게 되면

01:10:40.801 --> 01:10:43.029

이렇게 적혀있었던
말이에요, 중세시기 때.

01:10:43.129 --> 01:10:45.322

그래서 이때 뒤에 있는
건 된소리로 나오고

01:10:45.422 --> 01:10:47.981

이 앞에 ㅂ이 내려오는
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.

01:10:48.081 --> 01:10:50.844

또 입때, 접때할 때
시간과 관련된 거잖아요.

01:10:50.944 --> 01:10:55.878

예를 들면 저+ㅂ때, 이렇게
적혀있던 단어들이에요.

01:10:55.978 --> 01:10:59.385

그래서 맨 뒤에 있는
ㅂ이 된소리로 변하고

01:10:59.485 --> 01:11:02.256

ㅂ이 내려오는 식으로 흔적이
남아 있는 겁니다.

01:11:02.356 --> 01:11:05.044

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런
단어들 유지해주고요.

01:11:05.144 --> 01:11:07.131

또 ㅎ 소리가 덧나는 거.

01:11:07.231 --> 01:11:12.794

이것도 역시 중세국어의
ㅎ중성체언이라는 단어가 있죠.

01:11:12.894 --> 01:11:13.987

그래서 그런 놈들.

01:11:14.087 --> 01:11:16.287

우리가 축약 형태가
생긴다고 했잖아요.

01:11:16.387 --> 01:11:18.326

그래서 여기 있는
수라고 하는 어휘가

01:11:18.426 --> 01:11:20.532

ㅎ을 가지고 다니는 어휘였던 건데

01:11:20.632 --> 01:11:26.394

개랑 만나서 수캐, 이런 식으로
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11:26.494 --> 01:11:27.780

준말 규칙입니다.

01:11:27.880 --> 01:11:31.296

32항, 단어의 끝모음이
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

01:11:31.396 --> 01:11:33.978

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.

01:11:34.078 --> 01:11:35.452

눈에 익혀두는 정도로.

01:11:35.552 --> 01:11:37.812

그래서 기러기야 이런 거 기럭야,
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

01:11:37.912 --> 01:11:40.541

너구리야를 너굴야, 이렇게
적는 것도 괜찮았고요.

01:11:40.641 --> 01:11:43.696

개구리야를 개굴야, 이렇게
적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.

01:11:43.796 --> 01:11:46.286

이런 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.

01:11:46.386 --> 01:11:51.235

다음, 체언과 조사가 어울릴
때 그대로 적어도 돼요.

01:11:51.335 --> 01:11:54.415

그래서 그것은 할 때 주어
구어적 표현으로 그건 말이야,

01:11:54.515 --> 01:11:58.996

그게, 그걸로, 나는을 난, 이렇게
적는 거 괜찮다는 이야기고요.

01:11:59.096 --> 01:12:00.026
재미난 건 이거죠.

01:12:00.126 --> 01:12:05.867
'무엇을'을 줄였을 때 1, 2음절을 줄이게
되면 뭣을, 이렇게 되는 거고요.

01:12:05.967 --> 01:12:08.753
2, 3음절을 줄이게
되면 무얼이 나오는데

01:12:08.853 --> 01:12:12.193
2, 3음절의 이 무얼을 또
한 번 줄이면 뭘이 나와요.

01:12:12.293 --> 01:12:13.643
다 가능합니다.

01:12:13.743 --> 01:12:18.242
그리고 무엇이를 줄이면
1, 2음절을 줄였더니 뿔이.

01:12:18.342 --> 01:12:19.824
2, 3음절 줄이면 무에.

01:12:19.924 --> 01:12:22.558
그러니까 뭣이 중헌디,
라고 이야기했을 때

01:12:22.658 --> 01:12:26.346
중헌디, 이견 사투리인데 뭇이,
이거는 사투리가 아니예요.

01:12:26.446 --> 01:12:27.580
이게 표준어 원칙입니다.

01:12:27.680 --> 01:12:31.129
그래서 준말로 인해 생기는 거죠.

01:12:32.644 --> 01:12:38.941
모음 'ㅏ, ㅑ'로 끝난 어간에
'-아/-어, -았/-었-'.

01:12:39.041 --> 01:12:42.016
이런 종결이나 선어말
어미 같은 거 붙었을 때

01:12:42.116 --> 01:12:46.047
 줄어든 대로 적는다,
 우리 잘하는 방식이니까.

01:12:47.457 --> 01:12:48.740
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.

01:12:48.840 --> 01:12:55.626
가았다가 아니라 갔다, 가아는 가,
이렇게 해서 동음탈락 현상 생기죠.

01:12:55.726 --> 01:12:59.964

'내, 내'뒤에 '-어, -었-'이
줄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 대로.

01:13:00.064 --> 01:13:04.466

날씨가 개었다, 날씨가 갼다,
이렇게 쓰게 됩니다.

01:13:06.272 --> 01:13:07.313

이거 다 알죠?

01:13:07.413 --> 01:13:12.363

하여는 공부를 하여, 공부해,
이렇게 줄일 수 있죠.

01:13:13.424 --> 01:13:18.298

이번에는 그, ㅏ가 줄어드는
현상에서 ㅍ아를 ㅍㅏ, 보아를 ㅍㅏ.

01:13:18.398 --> 01:13:23.739

보았다를 ㅑㅑ다, 이렇게 줄여
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.

01:13:23.839 --> 01:13:26.273

붙임 1, 애는 좀
특이한 경우예요.

01:13:26.373 --> 01:13:32.982

왜냐하면, 놓다라는 단어는 아가
붙었을 때 이렇게 써도 돼요.

01:13:33.082 --> 01:13:38.524

그런데 ㅑㅑ, 이렇게
쓸 수 있다는 거죠.

01:13:38.624 --> 01:13:46.144

그러면 애는 규칙용언이니까 예를
들면 좋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가.

01:13:46.244 --> 01:13:47.927

좌, 이러면 안 되거든요.

01:13:48.027 --> 01:13:52.276

그러니까 이놈만 너무 특이해서
따로 조항을 마련해준 거예요.

01:13:52.376 --> 01:13:54.519

그런데 이게 이렇게 준다고 해서

01:13:54.619 --> 01:14:00.349

예를 들면 애를 놀, 이렇게
줄일 수는 없습니다.

01:14:00.449 --> 01:14:01.142

이건 안 돼요.

01:14:01.242 --> 01:14:04.663

그러니까 보내놓을게 할 때 보내
놓게, 이렇게 쓸 수 없는 겁니다.

01:14:04.763 --> 01:14:09.606

그래서 뇌만 줄일 수 있다는 거로
따로 조항을 마련해준 거고요.

01:14:09.706 --> 01:14:16.058
그다음에 이런 거 돼를 써야 될지
되를 써야 될지의 그 위치의 파악은

01:14:16.158 --> 01:14:18.965
이거의 준말이 애라는
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.

01:14:19.065 --> 01:14:23.980
그래서 너가 가면 되지.

01:14:24.080 --> 01:14:26.323
맞아요, 틀려요? 맞죠.

01:14:26.423 --> 01:14:29.004
너가 가면 돼지.
제발좀...

01:14:29.104 --> 01:14:31.313
그러니까 이게 되려면
이게 뭐라는 이야기죠?

01:14:31.413 --> 01:14:35.302
되어지, 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
이야기인데 안 된다는 이야기죠.

01:14:35.402 --> 01:14:38.552
그러니까 되다 어간에
종결어미 지를 쓴 거죠.

01:14:38.652 --> 01:14:40.368
되냐, 되니 이렇게 쓸 때.

01:14:40.468 --> 01:14:45.066
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
쓰냐고요, 꿀꿀이도 아닌데.

01:14:45.166 --> 01:14:47.138
그래서 되었다, 됐다.

01:14:47.238 --> 01:14:51.111
그러니까 되었이 줄어서
됐, 이렇게 되는 구조죠.

01:14:51.211 --> 01:14:52.260
준말 36항입니다.

01:14:52.360 --> 01:14:53.669
'ㅣ' 뒤에 '-어'가
오면 'ㄷ'로 가죠.

01:14:53.799 --> 01:14:56.703
그래서 가지어를 가져,
가지었다를 가졌다.

01:14:56.803 --> 01:15:01.806
견디었다, 견뎠다 이렇게
줄여 쓸 수 있습니다.

01:15:01.906 --> 01:15:02.865
37항이고요.

01:15:02.965 --> 01:15:06.108
이것도 줄여 쓰는 예인데
많이 보이는 단어는 아니죠.

01:15:06.208 --> 01:15:09.855
그래서 눈에 띄이다를 눈에 띄다,
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.

01:15:09.955 --> 01:15:11.925
주름살이 펴일 날이 없어.

01:15:12.025 --> 01:15:16.040
주름살이 펴 날이 없어,
이런 식으로 씁니다.

01:15:18.760 --> 01:15:22.182
싸이어, 싸어있었다.
뜨이어, 띄어있었다.

01:15:22.282 --> 01:15:23.394
그런데 나머지 잘 보세요.

01:15:23.539 --> 01:15:24.921
예를 들면 쓰이어를 줄이면

01:15:25.021 --> 01:15:28.046
1, 2음절을 줄이면 씹어,
이렇게 되는 거고요.

01:15:28.146 --> 01:15:31.272
2, 3음절을 줄이게 되면 쓰여가
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예요.

01:15:31.372 --> 01:15:34.427
그래서 앞에 걸 줄이거나 뒤에
걸 줄이거나 가능하다는 건데

01:15:34.519 --> 01:15:38.489
왜 띄이어의 경우에는 이게 띄어로만
가느냐, 라고 물어볼 수 있죠.

01:15:38.597 --> 01:15:43.534
그래서 이걸 공간을 띄게
하라고 할 때의 애는

01:15:43.634 --> 01:15:45.649
뜨여 쓰기, 이런 말
들어본 적 있습니까?

01:15:45.749 --> 01:15:47.191
어색하죠, 이걸 안
쓰겠다는 이야기예요.

01:15:47.291 --> 01:15:49.147
물론 눈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.

01:15:49.247 --> 01:15:52.293

그러니까 눈이 띄어, 눈이
뜨여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.

01:15:52.393 --> 01:15:56.202
그런데 이게 공간을 띄게 만들다의
뜻이라면 뜨여는 안 쓰기 때문에

01:15:56.302 --> 01:16:01.536
그래서 어문규정에 이것만
적혀있는 상황이에요.

01:16:01.636 --> 01:16:04.237
39항은 중요하니
좀 챙겨보셔야 돼요.

01:16:04.337 --> 01:16:08.949
39항과 연결해서
40항까지 쭉 갑니다.

01:16:09.049 --> 01:16:15.461
이런 요소들인데 뭐냐면,
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.

01:16:15.561 --> 01:16:20.005
A하다의 활용이에요.

01:16:20.105 --> 01:16:28.549
~A하다, ~A하지, ~A하건대
이런 방식을 만들었을 때

01:16:28.649 --> 01:16:36.342
줄일 때 이거를 A다, A지,
A건대 이런 식으로 가느냐,

01:16:36.442 --> 01:16:43.593
아니면 A타, A치, A컨대,
이렇게 가느냐에 차이가 생겨요.

01:16:43.693 --> 01:16:44.408
이해되십니까?

01:16:44.508 --> 01:16:48.453
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
하를 썩 다 빼는 경우죠.

01:16:48.553 --> 01:16:57.239
애는 '하' 탈락이고 그리고 애가 이게
되기 위해서는 ㅏ가 탈락한 뒤에 ㅎ과 ㄷ,

01:16:57.339 --> 01:17:00.180
ㅎ과 ㅈ, ㅎ과 ㄱ이
축약돼야 되거든요.

01:17:00.280 --> 01:17:05.869
그래서 ㅏ 탈락 후 축약이
이루어지는 상황.

01:17:05.969 --> 01:17:09.557
왜 두 가지가 나뉘느냐,
이놈의 정체가 중요해요.

01:17:09.657 --> 01:17:13.644

이놈의 정체에 A가 뭐로
끝나 있어야 된다?

01:17:13.744 --> 01:17:17.796

울림소리로 끝나면 이렇게 갑니다.

01:17:17.896 --> 01:17:19.097

가볼게요.

01:17:19.197 --> 01:17:21.285

지금 간편하게 볼게요.

01:17:21.385 --> 01:17:25.020

보면 하다 계열 앞에
ㄴ, 울림소리죠?

01:17:25.120 --> 01:17:26.811

그러면 애를 줄일 때
이렇게 할 수 있다?

01:17:26.911 --> 01:17:30.656

ㅏ를 뺀 뒤에 ㅎ, ㄱ이
줄어서 간편케가 나와요.

01:17:30.756 --> 01:17:33.157

연구하다에서 연구하도록
이렇게 되어있는데

01:17:33.257 --> 01:17:36.529

그러면 하 앞이 울림소리
ㄷ 받침 없으니까.

01:17:36.629 --> 01:17:40.644

그러면 연구+ ㅏ 빠지고 연구도록
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17:40.744 --> 01:17:41.807

가하다, 가타.

01:17:41.907 --> 01:17:43.012

가타 못 들어봤어요?

01:17:43.112 --> 01:17:45.783

가타부터, 말이 없다 이런
표현 쓸 때 나오죠.

01:17:45.883 --> 01:17:49.949

이런 식으로 해서 울림소리
뒤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.

01:17:50.049 --> 01:17:51.477

앞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

01:17:51.577 --> 01:17:56.227

애는 만만하다, 라고
했을 때 하지로 갔는데

01:17:56.327 --> 01:17:58.960

애가 그러면 ㄴ
받침이니까 울림소리다.

01:17:59.060 --> 01:18:01.175

그러면 만만치 않다,
이렇게 나올 수 있고

01:18:01.275 --> 01:18:03.507

만만치 않다는 한 번 더
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?

01:18:03.607 --> 01:18:06.741

만만찮다, 이렇게 나오는 거죠.

01:18:06.841 --> 01:18:13.680

그러면 붙임 1에는 이견 항이 그대로
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

01:18:13.780 --> 01:18:14.361

이제 보세요.

01:18:14.461 --> 01:18:16.603

'하'가 완전히 줄
적에는이라고 했는데

01:18:16.703 --> 01:18:18.872

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보세요.

01:18:18.972 --> 01:18:24.502

하다 앞에 ㄱ 받침과
하다 앞에 ㅅ 받침.

01:18:24.602 --> 01:18:25.866

울림소리가 아닌 경우.

01:18:25.966 --> 01:18:29.304

그래서 거북하지를 줄일 때
거북치 않다가 아니라

01:18:29.448 --> 01:18:32.028

거북+ '하' 빠지고 거북지 않다.

01:18:32.128 --> 01:18:36.953

생각하건대를 줄이면 생각건대,
생각컨대가 아니라.

01:18:37.053 --> 01:18:42.345

단언하건대를 줄이면
어떻게 되겠어요?

01:18:42.445 --> 01:18:45.537

내가 단언하건대를 줄이게 되면

01:18:45.637 --> 01:18:48.394

'하' 앞이 ㄴ 울림소리니까
어떻게 써야 된다?

01:18:48.494 --> 01:18:50.413

단언컨대로 간다는 이야기죠.

01:18:50.513 --> 01:18:54.923

차이가 보이죠?

01:18:55.023 --> 01:18:57.989
이 조항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

01:18:58.089 --> 01:19:01.869
그래서 익숙하지 않다에서 '하'
짝 빠지면 익숙지 않다.

01:19:01.969 --> 01:19:05.615
한 번 더 줄이면 어떻게 된다?

01:19:05.715 --> 01:19:10.842
익숙잖다까지 이런 식으로
나올 수 있는 거예요.

01:19:12.563 --> 01:19:16.829
다음과 같은 부사의
소리대로 적는다.

01:19:16.929 --> 01:19:21.688
여러분이 많이 오해하거나 틀리는 경우
중의 하나가 이런 단어들이더라고요.

01:19:21.788 --> 01:19:24.195
하마트면이라고 많이 쓰던데?

01:19:24.295 --> 01:19:25.294
그렇게 쓰면 안 되죠.

01:19:25.394 --> 01:19:29.197
하마터면이 맞는 어휘입니다.

01:19:32.104 --> 01:19:38.513
띄어쓰기 쪽도 참 중요해요.

01:19:38.613 --> 01:19:44.156
그래서 띄어쓰기 원칙들은 예들이
어문규정에도 충분하진 않습니다.

01:19:44.256 --> 01:19:46.237
그래서 최대한 많이 아셔야겠지만

01:19:46.337 --> 01:19:49.122
일단 조사가 뭔지를 많이
알아두는 게 좋은 거 같아요.

01:19:49.222 --> 01:19:52.065
격조사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고

01:19:52.165 --> 01:19:54.543
공부하시면서 보조사들을
많이 볼 때마다

01:19:54.643 --> 01:19:56.611
이것도 조사구나, 라는
걸 알아나가면 됩니다.

01:19:56.711 --> 01:19:59.471
그래서 어쨌든 조사는 앞 단어와
붙여 쓴다는 이야기죠.

01:19:59.571 --> 01:20:01.735

색깔로 표기되어있는
것들이 조사들이었어요.

01:20:01.835 --> 01:20:05.251

그래서 격조사들이야
체인 뒤에만 붙이만

01:20:05.351 --> 01:20:08.214

보조사의 경우에는 이렇게
부사 뒤에 붙거나

01:20:08.314 --> 01:20:11.032

연결어미 뒤에 붙거나
이럴 수도 있었잖아요.

01:20:11.132 --> 01:20:13.147

붙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.

01:20:13.247 --> 01:20:15.670

다음 42항.

01:20:15.770 --> 01:20:18.551

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
명사 및 열거하는 말인데

01:20:18.689 --> 01:20:20.231

의존 명사는 띄어 씁니다.

01:20:20.331 --> 01:20:24.538

그래서 이런 것도 의존 명사니까
붙이지 않고 띄어 쓰잖아요.

01:20:24.638 --> 01:20:29.084

그러니까 이게 의존 명사인지 아닌지를
판단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.

01:20:29.184 --> 01:20:30.978

예를 들면 그가 떠난 지 몰랐다.

01:20:31.078 --> 01:20:42.195

이런 식으로 쓸 때
이렇게 써야 되거든.

01:20:42.295 --> 01:20:45.193

그러니까 이거는 왜 붙여 쓰고 이걸
왜 띄어 씁니까, 라고 물어본다면

01:20:45.293 --> 01:20:47.348

이때는 지가 의존 명사이고

01:20:47.448 --> 01:20:52.736

애는 떠나다의 떠나 어간에
ㄴ지라는 어미이기 때문에

01:20:52.836 --> 01:20:54.157

서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

01:20:54.257 --> 01:20:56.773

이걸 사실 헛갈리면 하면
굉장히 짜증 날 텐데

01:20:56.873 --> 01:21:01.153

이건 힌트가 사실 뭐냐면, 이
지가 의존 명사라고 한다면

01:21:01.253 --> 01:21:03.552

뒤쪽에 시간 정보가 나와요.

01:21:03.652 --> 01:21:06.185

떠난 지가 3일이 되었다,
떠난 지가 올해다.

01:21:06.285 --> 01:21:09.356

며칠이 됐냐, 이런 식으로
시간 정보가 뒤쪽에 나와주면

01:21:09.456 --> 01:21:10.579

그때 애는 의존 명사예요.

01:21:10.679 --> 01:21:16.901

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
편하게 외울 수가 있죠.

01:21:17.001 --> 01:21:19.719

이런 만큼 같은 경우도 조사냐,
아니냐 주의하셔야 되죠.

01:21:19.819 --> 01:21:24.887

너만큼 나도 잘해, 이렇게 할 때는
너에 만큼을 붙여 써야 되는 조사지만

01:21:24.987 --> 01:21:32.045

애는 관형형, 먹다의 활용으로 먹을 띄고,
만큼이니까 띄어 써주는 거 맞죠.

01:21:32.145 --> 01:21:33.880

단위를 나타내주는 건
다 띄어 쓰죠.

01:21:33.980 --> 01:21:36.429

단위를 나타내는 의존
명사라고 하죠.

01:21:36.529 --> 01:21:37.827

이런 것들 쪽 보시고요.

01:21:37.927 --> 01:21:40.339

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

01:21:40.439 --> 01:21:43.803

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
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.

01:21:43.903 --> 01:21:47.339

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되면 일단
다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지

01:21:47.439 --> 01:21:51.210

여러분, 붙여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
띄어 쓰는 게 틀리진 않아요.

01:21:51.310 --> 01:21:54.300

그래서 예를 들면 7 띄고
미터도 틀리진 않지만

01:21:54.400 --> 01:21:56.801
붙여 쓰는 게 좀 더
깔끔해 보이긴 하죠.

01:21:56.901 --> 01:21:58.066
여러분, 이거 오해하시면
안 됩니다.

01:21:58.166 --> 01:22:00.310
육층이 무조건 붙이는
단어는 아니에요.

01:22:00.410 --> 01:22:03.727
이게 예문이 순서를 나타내는
경우이기 때문에 붙인 건데

01:22:03.827 --> 01:22:08.199
예를 들어 비교해볼게요.

01:22:08.299 --> 01:22:12.427
나는 육층에 살아.

01:22:16.937 --> 01:22:20.723
저 건물은 육 층짜리이다.

01:22:29.640 --> 01:22:31.058
차이가 나요.

01:22:31.158 --> 01:22:31.960
보세요.

01:22:32.060 --> 01:22:33.927
지금 순서를 나타내야지만.

01:22:34.027 --> 01:22:39.221
일단은 단위성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
층은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이겠죠.

01:22:39.321 --> 01:22:41.125
그런데 애는 붙여 썼단 말이에요.

01:22:41.225 --> 01:22:45.354
왜 붙여 썼느냐, 앞의
뜻을 보면, 순서예요.

01:22:45.454 --> 01:22:50.022
내가 1층, 2층, 3층, 4층, 5층,
6층이라고 하는 순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

01:22:50.122 --> 01:22:51.068
그래서 붙여 쓴 거야.

01:22:51.168 --> 01:22:55.610
그런데 애의 경우에는 저 건물의
규모가 육 층짜리라는 거지

01:22:55.710 --> 01:22:57.543
순서를 이야기하는 게

아니라는 겁니다.

01:22:57.643 --> 01:22:59.367
그때는 띄어 써야 맞는 거야.

01:22:59.467 --> 01:23:04.090
단,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육이
아라비아 숫자 6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

01:23:04.190 --> 01:23:06.734
그러면 또 조건에
순서와 어울렸을 때는

01:23:06.834 --> 01:23:10.167
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
붙여도 상관없어요.

01:23:10.267 --> 01:23:14.444
이런 걸 봤는데도
틀리면 안 되잖아요.

01:23:14.544 --> 01:23:17.533
그래서 적용하는 작업을
한번 해봤습니다.

01:23:17.633 --> 01:23:20.251
44항 수 적을 때 만 단위로.

01:23:20.351 --> 01:23:22.840
이런 어마어마한 단위를
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

01:23:22.940 --> 01:23:24.802
아무튼 이렇게 띄어 쓰고요.

01:23:24.902 --> 01:23:28.189
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
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.

01:23:28.289 --> 01:23:32.856
접속해줄 수 있는 부사라든지
아니면 의존 명사들인데요.

01:23:32.956 --> 01:23:35.319
띄어 써주고요.

01:23:35.419 --> 01:23:38.553
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
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.

01:23:38.653 --> 01:23:40.015
띄어 써도 상관은 없어요.

01:23:40.115 --> 01:23:43.004
그래서 이런 좀더라는
단어가 존재하진 않아요.

01:23:43.104 --> 01:23:47.385
큰 것이란 단어가 존재하진 않는데
이걸 '좀 더 큰 것'.

01:23:47.485 --> 01:23:49.477
이렇게 너무 띄어 쓰면 보기 싫다고

01:23:49.577 --> 01:23:55.470
단음절끼리 있을 때는 붙여 쓰는
것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고요.

01:23:55.570 --> 01:23:58.229
보조 용언 부분 좀 챙겨주세요.

01:23:58.358 --> 01:24:02.127
선생님이 용언에서 보조 용언의
띄어쓰기 설명한 적 있어요.

01:24:02.227 --> 01:24:04.718
두 개를 기억하셔야
된다고 했습니다.

01:24:04.818 --> 01:24:08.253
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사이에 연결어미가
모일 때 붙일 수 있다.

01:24:08.353 --> 01:24:09.979
'아'나 '어'나 '여'.

01:24:10.079 --> 01:24:16.153
두 번째, ~척하다, 체하다,
만하다, 법하다와 같이 의존 명사에

01:24:16.253 --> 01:24:19.438
하다나 싶다가 더해진 보조용언도
붙여 쓸 수 있다.

01:24:19.538 --> 01:24:20.351
이야기해줍니다.

01:24:20.451 --> 01:24:23.466
여기서 ㄱ이 원칙이고
ㄴ이 허용범위거든요.

01:24:23.566 --> 01:24:29.264
지금 보시면 3개의 예문을
봤을 때는 꺼지어 간다,

01:24:29.364 --> 01:24:33.196
막아내다, 돌아해서 아가 나왔죠?

01:24:33.296 --> 01:24:36.950
그래서 연결어미가 '어'나
'아'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

01:24:37.050 --> 01:24:40.167
붙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,
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를.

01:24:40.267 --> 01:24:41.906
ㄱ도 맞고 ㄴ도 맞아요.

01:24:42.006 --> 01:24:43.840
ㄱ이 원칙, ㄴ이 허용입니다.

01:24:43.940 --> 01:24:51.825
또 듯하다, 만하다, 성싶다,
척하다, 체하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

01:24:51.925 --> 01:24:54.649
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
더해진 보조용언.

01:24:54.749 --> 01:25:00.352
앞에 있는 본용언 띄어 쓰는 것이
원칙이지만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.

01:25:01.273 --> 01:25:03.969
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.

01:25:04.069 --> 01:25:06.380
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
합성 용언인 경우,

01:25:06.480 --> 01:25:11.647
그리고 중간에 조사가
들어간 경우라면 안 돼.

01:25:11.747 --> 01:25:14.675
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a,
이게 a의 예문이겠죠?

01:25:14.775 --> 01:25:18.254
앞말이 합성 용인 경우 b,
이것이 b에 대한 예문입니다.

01:25:18.354 --> 01:25:20.480
그리고 중간에 조사가
들어갈 적 c라고 한다면

01:25:20.580 --> 01:25:23.201
이게 c에 대한 예문이
될 텐데 보세요.

01:25:23.301 --> 01:25:25.350
놀아나다, 라고 하면 팬찮아요.

01:25:25.450 --> 01:25:28.016
그러면 붙일 수 있는데
놀아만, 조사가 껴 들어갔어.

01:25:28.170 --> 01:25:30.354
그러면 못 붙이는 거야.

01:25:30.454 --> 01:25:31.868
읽어보고, 이러면 붙일 수 있어.

01:25:31.968 --> 01:25:35.225
그런데 읽어도 보고에
조사가 껴있어, 안 돼.

01:25:35.325 --> 01:25:36.349
못 붙여.

01:25:36.449 --> 01:25:38.901
다음, 앞말이 합성 용언이다.

01:25:39.001 --> 01:25:43.848

덤벼들다는 덤비다와 들다가
결합된 합성 용언.

01:25:43.948 --> 01:25:48.455

다시없다는 다시 부사의 없다라고
하는 용언이 합쳐진 합성 용언.

01:25:48.555 --> 01:25:52.140

애는 합성 동사, 애는
합성 형용사가 되겠죠.

01:25:52.240 --> 01:25:57.376

이럴 때라면 뒤에 있는 보조용언을
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.

01:25:57.476 --> 01:25:58.543

이해되셨어요?

01:25:58.643 --> 01:26:01.210

합성용언 뒤에 보조용언
붙일 수 없다.

01:26:01.310 --> 01:26:02.697

왜 너무 길어진다고 보는 거죠.

01:26:02.797 --> 01:26:04.618

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.

01:26:04.718 --> 01:26:08.022

듯하다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
듯도 하다, 라는 식으로

01:26:08.122 --> 01:26:11.545

조사가 끼 들어가면 이제는 더
이상 보조 용언이 아니야.

01:26:11.645 --> 01:26:14.666

다음, 체하다 그러면 보조
용언인데 체를 한다.

01:26:14.766 --> 01:26:16.405

이러면 더 이상 보조
용언이 아니야.

01:26:16.505 --> 01:26:21.296

의존 명사의 조사에 하다, 라고
하는 동사에 불과한 거죠.

01:26:21.396 --> 01:26:24.356

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체를
한다를 붙일 수가 없고

01:26:24.456 --> 01:26:27.358

잘난체라고 붙일 수 없는
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26:27.458 --> 01:26:33.186

그래서 '다만' 조항까지
잘 적용하셔야겠네요.

01:26:33.286 --> 01:26:35.047

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인데요.

01:26:35.147 --> 01:26:35.916

이게 이렇게 됩니다.

01:26:36.016 --> 01:26:40.993

성과 이름은 붙여 쓰셔야 되겠고
호칭어나 관직명 같은 건 띄어 써주는데

01:26:41.093 --> 01:26:44.469

만약에 우리나라의 성이 이
음절짜리 성이 몇 개 있죠.

01:26:44.569 --> 01:26:52.631

제갈 씨도 있고 선우 씨, 남궁
씨, 독고, 황보 이런 씨 있고요.

01:26:52.765 --> 01:26:55.636

일본이나 중국에서 넘어온
귀하성도 좀 있어요.

01:26:55.736 --> 01:27:01.390

그래서 그중에 어금 씨,
이런 거 있던데요?

01:27:01.490 --> 01:27:08.431

망절, 소봉 이런 2음절 한자어 성이 있는데
그럴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

01:27:08.531 --> 01:27:11.546

이름하고 성하고 띄어 써주는
게 가능하다는 겁니다.

01:27:11.646 --> 01:27:16.337

심지어는 귀하성으로
쥬 씨가 있어요.

01:27:16.437 --> 01:27:19.058

개 씨도 있고요.

01:27:21.284 --> 01:27:22.142

49항입니다.

01:27:22.242 --> 01:27:25.836

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원래 띄어
쓰는데 붙여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.

01:27:25.936 --> 01:27:28.117

ㄱ도 맞고 ㄴ도 맞고.

01:27:28.217 --> 01:27:31.225

또 전문 용어 같은
경우도 마찬가지.

01:27:31.325 --> 01:27:35.242

띄어 써도 되고 ㄴ처럼 붙여 써도
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27:35.342 --> 01:27:37.113

이제 그 밖의 것 조항이고요.

01:27:37.213 --> 01:27:41.435

51항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.

01:27:41.535 --> 01:27:44.833

51항 부분 부사의 표기.

01:27:44.933 --> 01:27:47.639

이 이야기예요.

01:27:47.739 --> 01:27:55.859

부사를 만들 때 어근에 -히를 쓸 거냐
-이를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.

01:27:55.959 --> 01:27:57.354

이거는 그냥 외웁시다.

01:27:57.454 --> 01:27:58.548

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.

01:27:58.648 --> 01:28:06.596

뭐냐하면, -히는 일단 A하다
구조가 되는 놈이라고 한다면

01:28:06.696 --> 01:28:07.838

히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.

01:28:07.938 --> 01:28:10.528

바꿔서 이야기해봅시다.

01:28:12.757 --> 01:28:15.169

애를 부사로 만들
때는 A히로 갑니다.

01:28:15.269 --> 01:28:19.645

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
그 외의 경우라고 한다면

01:28:19.745 --> 01:28:24.359

A 하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
그냥 -이로 가면 돼요.

01:28:24.459 --> 01:28:26.111

일단 이게 대원칙이고요.

01:28:26.211 --> 01:28:29.142

다음, 예외가 있어요.

01:28:29.242 --> 01:28:31.123

예외 1.

01:28:32.214 --> 01:28:33.956

아까 어떤 게 있었죠?

01:28:34.056 --> 01:28:34.931

ㅅ 받침 뒤.

01:28:35.031 --> 01:28:41.293

그래서 ㅅ 받침 뒤라면
애는 뭐로 가겠다?

01:28:41.393 --> 01:28:44.121
이로 가겠다는 겁니다.

01:28:44.221 --> 01:28:45.294
A이로 가겠습니다.

01:28:45.394 --> 01:28:47.703
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.

01:28:47.803 --> 01:28:48.711
가בות하다 됩니다.

01:28:48.811 --> 01:28:49.924
그런데 가בות이로 가요.

01:28:50.024 --> 01:28:51.637
깨끗하다 돼요, 깨끗이로 갑니다.

01:28:51.737 --> 01:28:53.213
나분하다 돼요, 나בות이로 갑니다.

01:28:53.313 --> 01:28:54.936
느긋하다 돼요, 느긋이로 갑니다.

01:28:55.036 --> 01:28:56.639
ㅅ 받침 뒤니까 그러는 거예요.

01:28:56.739 --> 01:28:58.980
따뜻하다, 반듯하다 하시겠습니까?

01:28:59.080 --> 01:29:01.921
그리고 나머지 가깝하다 안 되죠.

01:29:02.021 --> 01:29:03.542
이거 가깝다죠.

01:29:03.642 --> 01:29:06.739
그러니까 가깝다에서
그냥 이로 붙는 거야.

01:29:06.839 --> 01:29:08.308
곶다죠, 곶하다 아니죠.

01:29:08.408 --> 01:29:10.866
그러니까 고이로 가는
거죠, ㅂ 빠지면서.

01:29:10.966 --> 01:29:13.813
날카롭다, ㅂ 받침류인데
날카롭하다 아니잖아요.

01:29:13.913 --> 01:29:15.060
그러면 날카로이.

01:29:15.160 --> 01:29:17.326
그러니까 어쨌든 형태가 변하는 거는

01:29:17.426 --> 01:29:19.740
순경음 ㅂ 생겼다가
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

01:29:19.840 --> 01:29:22.009

역사적 과정 속에서
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

01:29:22.109 --> 01:29:25.797

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일단 하다
구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.

01:29:25.897 --> 01:29:26.715

만하다 아니죠.

01:29:26.815 --> 01:29:30.074

적하다, 겹겹하다, 번번하다.

01:29:30.174 --> 01:29:33.290

번번하다 있는데? 그렇죠,
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

01:29:33.390 --> 01:29:40.471

이건 왜 번번이라고 적했느냐,
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

01:29:40.571 --> 01:29:44.378

이 번번이는 뭐의
개념으로 쓰인 거냐면,

01:29:46.195 --> 01:29:49.099

이게 뭐예요?
매번 할 때 단위 의존명사.

01:29:49.199 --> 01:29:52.622

그래서 한 번, 두 번
할 때 단위 의존명사.

01:29:52.722 --> 01:29:55.023

그러면 애는 한 번,
두 번 할 때 그 번번.

01:29:55.123 --> 01:29:57.992

번번이 죄송합니다, 라고
할 때는 이걸 쓰는 게 맞아요.

01:29:58.092 --> 01:30:03.750

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,
번번히라는 단어가 있어요.

01:30:03.850 --> 01:30:06.421

이게 왜 생기냐, 애는 어디서
왔다는 이야기입니까?

01:30:06.521 --> 01:30:08.450

번번하다는 단어가 있어요.

01:30:08.550 --> 01:30:10.926

어떤 단어?
여러분, 반반하다 알죠.

01:30:11.026 --> 01:30:12.669

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어.

01:30:12.769 --> 01:30:14.880

똑같아요, 번번하다와
똑같은 단어입니다.

01:30:14.980 --> 01:30:17.076

그래서 얼굴은 참 번번하게 생겨서,

01:30:17.176 --> 01:30:20.147

얼굴 참 번번히 생겨서
하는 짓은 왜 그래?

01:30:20.247 --> 01:30:21.378

이럴 때는 번번히.

01:30:21.478 --> 01:30:22.759

왜? 하다 구조였기 때문에.

01:30:22.859 --> 01:30:26.212

그러나 애는 번번, 때번
때번 이게 아니거든요.

01:30:26.312 --> 01:30:29.956

그래서 이거는 첩어라고 해서
단위 의존명사 두 번 겹치고

01:30:30.056 --> 01:30:32.240

그때는 하다 구조가 아닌
이를 쓰는 거예요.

01:30:32.340 --> 01:30:34.358

그래서 이런 차이죠.

01:30:34.458 --> 01:30:39.565

그다음, '-히'로만 나는
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
01:30:39.711 --> 01:30:42.880

보게 되면 극히, 급히,
딱히, 속히, 작히.

01:30:42.980 --> 01:30:46.608

이런 거 하다류라는 이야기죠?

01:30:46.708 --> 01:30:50.690

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는데 2음절
자는 사실 이로 쓸 수가 없죠.

01:30:50.790 --> 01:30:55.254

극이, 급이, 딱이, 속이 이렇게 안
쓰니까 걱정할 거 없고 한번 봅시다.

01:30:55.354 --> 01:30:57.608

엄격하다 되죠? 엄격히.

01:30:57.708 --> 01:30:59.468

정확하다 되죠? 정확히.

01:30:59.568 --> 01:31:00.432

이렇게 갑니다.

01:31:00.532 --> 01:31:07.322

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발음으로 가고
있는데 문제는 우리가, 보세요.

01:31:07.422 --> 01:31:09.181
소리가 '이'로만 나는
거 '이'로 적는다.

01:31:09.281 --> 01:31:10.786
'히'로만 나는 거
'히'로 적는다.

01:31:10.886 --> 01:31:14.279
'이'나 '히'로 발음이
나는 것은 '히'로 적는다.

01:31:14.379 --> 01:31:16.080
문제는 내가 내 발음을 몰라.

01:31:16.180 --> 01:31:17.866
내 발음을 못 믿겠는데.

01:31:17.966 --> 01:31:20.652
그러니까 이 원칙보다 이게 더
깔끔하다는 이야기죠.

01:31:20.752 --> 01:31:24.066
그래서 솔직하다, 솔직히.

01:31:24.166 --> 01:31:25.789
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
이야기입니다.

01:31:25.889 --> 01:31:27.585
이거 전부 다 하다류가 돼요.

01:31:27.685 --> 01:31:34.036
보면 심지어는 가만하다, 라는
단어가 사전에 있어요.

01:31:34.136 --> 01:31:35.278
도저하다, 이런 단어 있어요.

01:31:35.378 --> 01:31:37.762
그래서 그런 것들이
'히'로 가는 건데

01:31:37.862 --> 01:31:42.309
문제는 예외 2를 갈게요.

01:31:47.692 --> 01:31:48.514
ㄱ 받침 뒤.

01:31:48.614 --> 01:31:51.849
선생님, 솔직하다는 '히'맞잖아요.

01:31:51.949 --> 01:31:52.435
맞죠.

01:31:52.535 --> 01:31:58.252
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,
ㄱ 받침 뒤가 예를 들면

01:31:58.352 --> 01:31:59.832
듣직하다 있잖아요.

01:31:59.932 --> 01:32:03.555
그러면 듣직하다는 하다가
되니까 듣직히로 가느냐,

01:32:03.655 --> 01:32:06.630
애 듣직이로 가거든요.

01:32:06.730 --> 01:32:07.771
왜 이렇게 써야 되나요?

01:32:07.871 --> 01:32:08.835
그게 문제예요.

01:32:08.935 --> 01:32:13.635
뭐냐면, ㄱ 받침 뒤의 경우에는
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1:32:13.735 --> 01:32:19.913
한자어 되면 그냥 그대로
-히로 쓰시면 돼요.

01:32:20.013 --> 01:32:27.576
그래서 솔직히나 정확, 이런 것들은
한자어기 때문에 -히로 가요.

01:32:27.676 --> 01:32:30.797
그런데 듣직 같은
경우는 고유어거든요.

01:32:30.897 --> 01:32:39.939
그래서 고유어 뒤라고 한다면
-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32:40.039 --> 01:32:42.636
나직히일까요, 나직이일까요?

01:32:42.736 --> 01:32:45.081
나직은 한자어가 아니에요,
고유어입니다.

01:32:45.181 --> 01:32:46.377
나직이 말하다.

01:32:46.477 --> 01:32:49.619
나직하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
이렇게 쓰는 겁니다.

01:32:49.719 --> 01:32:55.013
그래서 이렇게 하는
방식이 이 방식.

01:32:55.903 --> 01:32:58.995
소리 나는 대로 가는
거로 가는 방식에

01:32:59.095 --> 01:33:01.923
이 부분을 해설이 사실

언급은 하거든요.

01:33:02.023 --> 01:33:06.045

그런데 이게 좀 더
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고요.

01:33:06.145 --> 01:33:06.807

완벽하진 않아요.

01:33:06.907 --> 01:33:08.952

그런데 이렇게 해도 예외가
분명히 있습니다.

01:33:09.052 --> 01:33:13.112

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%
이상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

01:33:13.212 --> 01:33:15.724

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.

01:33:15.824 --> 01:33:16.843

다음 겁니다.

01:33:16.943 --> 01:33:19.184

52항은 의미 없어요.

01:33:19.284 --> 01:33:20.172

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1:33:20.272 --> 01:33:24.223

본음, 속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
나무 목 자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?

01:33:24.323 --> 01:33:27.969

이 모과라는 단어에 한자가
이렇게 되어있어요.

01:33:28.069 --> 01:33:29.639

그러면 목과라고 써야
되는 거 아니야?

01:33:29.739 --> 01:33:33.191

그런데 이걸 모라고 읽어주는
걸 일명 속음이라고 해서

01:33:33.291 --> 01:33:34.142

이걸 인정해주는 겁니다.

01:33:34.242 --> 01:33:36.525

그래서 그런 단어들을
이야기해주고 있고요.

01:33:36.625 --> 01:33:41.143

이제 53항은 우리가
종결어미 부분인데

01:33:41.243 --> 01:33:43.695

말할 때 된소리 발음이
나오는 게 있거든요.

01:33:43.795 --> 01:33:45.554

그런데 된소리로 다 적지
않겠다는 이야기죠.

01:33:45.654 --> 01:33:49.889
그래서 예를 들면 재밋을꼐?

01:33:49.989 --> 01:33:54.446
발음은 재밋을꼐이라고 나지만 쓸
때는 재밋을꼐, 이렇게 쓰잖아요.

01:33:54.546 --> 01:33:57.929
내가 갈께, 라고 안 쓰고 내가
갈게, 라고 쓴다는 거죠.

01:33:58.029 --> 01:34:03.079
그래서 연결어미나 종결어미
같은 이런 부분에

01:34:03.179 --> 01:34:05.494
된소리 발음이 나온다
할지라도 어떻게 쓴다?

01:34:05.594 --> 01:34:06.699
예사소리로 써준다.

01:34:06.799 --> 01:34:09.723
물론 된소리 발음 날 때
된소리로 적는 게 있죠.

01:34:09.823 --> 01:34:12.667
그게 바로 의문일 때.

01:34:12.767 --> 01:34:15.742
그래서 ~일가, 이렇게 안 적죠.
~일까.

01:34:15.842 --> 01:34:18.143
~일고가 아니라 ~일꼬.

01:34:18.243 --> 01:34:20.750
~합니까,라고 하지 ~합니까,
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

01:34:20.850 --> 01:34:25.105
그래서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 된소리
발음 나와도 예사소리로 쓴다.

01:34:25.205 --> 01:34:29.851
그런데 의문 어미일 때는 된소리
그대로 유지한다, 라는 조건입니다.

01:34:29.951 --> 01:34:34.987
그다음 이제 54항,
거의 다 왔네요.

01:34:35.087 --> 01:34:37.773
접미사들 된소리로 적는 건데
이건 기억하시면 됩니다.

01:34:37.873 --> 01:34:41.395
꾼 접미사, 깔 접미사,

때기 접미사, 꿈치 접미사,

01:34:41.495 --> 01:34:44.314

빼기 접미사, 찍다라는
접미사들이 왔을 때는

01:34:44.414 --> 01:34:49.696

원래 된소리 표기를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
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.

01:34:49.796 --> 01:34:50.806

이것도 오타다.

01:34:50.906 --> 01:34:56.033

잘못된 거로 심부름꾼
이렇게 되면 되죠.

01:34:56.133 --> 01:34:59.628

다음, 55항.

01:34:59.728 --> 01:35:01.614

두 가지로 구별하여...
이건 의미가 없네요.

01:35:01.714 --> 01:35:10.169

왜냐하면, 이걸 어문규정을 처음 적었을
당시가 거의 80년도 후반인데

01:35:10.269 --> 01:35:15.447

여러분, 태어나기도
전이고 그럴 때니까

01:35:15.547 --> 01:35:18.651

그때의 경우에는 헛갈렸던
단어들이었어요.

01:35:18.751 --> 01:35:21.917

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ㄴ과 같은
어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

01:35:22.017 --> 01:35:23.200

고민할 거 없어요.

01:35:23.300 --> 01:35:24.945

그래서 입을 맞추나 양복을 맞추나

01:35:25.045 --> 01:35:29.073

다리를 뺀치나 멀리 뺀치나를
ㄱ처럼 써준다는 이야기고요.

01:35:29.173 --> 01:35:32.173

그리고 -더라, 던,
든지의 경우에는

01:35:32.273 --> 01:35:35.292

지금도 우리가 헛갈려하는 부분이기
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

01:35:35.392 --> 01:35:41.182

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과거 회상은
항상 더라, 던 계열이죠?

01:35:41.282 --> 01:35:43.757

그래서 이걸 드 계열로
쓸 수는 없는 거죠.

01:35:43.857 --> 01:35:48.101

그래서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지
춥드라,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이고.

01:35:48.201 --> 01:35:51.742

그렇게 좋던가? 라고 써야지 좋든가?
이렇게 쓸 수 없다.

01:35:51.842 --> 01:35:54.233

또 반대로 듣지의
경우에는 언제 쓴다?

01:35:54.333 --> 01:35:55.825

선택의 개념에 쓰는 거죠.

01:35:55.925 --> 01:35:59.155

그래서 듣지, 듣가
이런 것들은 선택.

01:35:59.255 --> 01:36:01.668

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
먹어라, 이렇게 써야 되지

01:36:01.768 --> 01:36:08.222

배던지 사과던지 하는 더, 던 과거
계열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36:08.322 --> 01:36:12.894

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서
57항 부분에 쪽 나와 있어요.

01:36:12.994 --> 01:36:18.314

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
여러분이 헛갈리는 것도 있고

01:36:18.414 --> 01:36:21.077

헛갈리지 않는 것들도
분명 있습니다.

01:36:21.206 --> 01:36:23.703

왜냐하면 그 당시에는
헛갈려 했다는 건데요.

01:36:23.803 --> 01:36:25.555

가름과 같음.

01:36:25.655 --> 01:36:26.843

이런 거 교체 개념이죠.

01:36:26.943 --> 01:36:30.832

그다음에 이런 건
헛갈리면 안 되겠다.

01:36:30.932 --> 01:36:35.792

경유해왔다는 개념이고 걷다, 피동형으로
거치다, 라는 말 쓴 거죠.

01:36:35.892 --> 01:36:37.658

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
여기 또 나오네요.

01:36:37.758 --> 01:36:41.145

견갑다의 경우에 ㄷ 받침이나
ㅌ 받침이나에 따라 다르죠.

01:36:41.245 --> 01:36:44.544

그래서 견갑을 수 없는, 거두어
잡을 수 없는 ㄷ 쓰는 거고요.

01:36:44.644 --> 01:36:49.916

애는 어림짐작하여 걸잡아도
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36:50.016 --> 01:36:53.727

그다음, 그는 부지런하니까
그러므로 잘 산다.

01:36:53.827 --> 01:36:57.767

앞에 있는 것이 원인, 뒤에
있는 것이 결과라는 이야기고요.

01:36:57.867 --> 01:37:01.103

그는 열심히 한다,
이러면 수단이에요.

01:37:01.203 --> 01:37:04.569

그럼으로써 결과, 이렇게
나올 때 차이가 있습니다.

01:37:04.669 --> 01:37:06.547

노름과 놀음의 차이는 분명 있죠.

01:37:06.647 --> 01:37:09.577

다음에 느리다, 늘이다,
늘리다의 경우인데

01:37:09.677 --> 01:37:17.393

여기서 이 느리다의 경우에
애네랑 헛갈리면 안 되겠지.

01:37:17.493 --> 01:37:18.797

애 둘은 헛갈릴 수 있어요.

01:37:18.897 --> 01:37:22.158

그런데 늘이다의
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

01:37:22.258 --> 01:37:25.402

원래 있던 길이를 더 길게 만드는
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1:37:25.502 --> 01:37:29.261

그래서 선분 AB를 더 늘이다,
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.

01:37:29.361 --> 01:37:31.919

예를 들면 커튼을

늘이다, 이렇게 나오면

01:37:32.019 --> 01:37:34.642

커튼의 길이를 좀 더 길게,
이렇게 한 거예요.

01:37:34.742 --> 01:37:36.960

봉제선 접어놓은 걸
길게 뺐다는 이야기고

01:37:37.060 --> 01:37:41.722

커튼을 늘리다 이러면 커튼의 개수
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로 보시면 되죠.

01:37:41.822 --> 01:37:45.478

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.

01:37:45.578 --> 01:37:47.190

이런 건 너무 하다.

01:37:47.290 --> 01:37:52.520

옷을 다려라, 약 만듭니까?

01:37:52.620 --> 01:37:53.567

안 헷갈리죠?

01:37:53.667 --> 01:37:57.177

애네 둘은 -히가 쓰이면
피동이고 -치가 쓰이면

01:37:57.277 --> 01:38:02.400

강제 접사라는 점으로
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.

01:38:03.743 --> 01:38:05.909

아까 전에 이 목거리 같은 경우에는

01:38:06.009 --> 01:38:09.354

어간의 그 뜻이 멀어졌기 때문에
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.

01:38:09.454 --> 01:38:11.038

목에 걸린 병을 뜻하는 단어고요.

01:38:11.138 --> 01:38:13.335

애는 장신구를 이야기하는 거죠.

01:38:13.435 --> 01:38:16.792

보시고요.

01:38:16.892 --> 01:38:20.030

다음 여기에 있는 이 발치다 같은
경우는 좀 모르는 어휘였을 거예요.

01:38:20.130 --> 01:38:23.571

그래서 체 같은 데 발쳐서
물, 액체 같은 걸

01:38:23.671 --> 01:38:26.053

빠지게 하는 게 이 트
받침 쓰는 거고요.

01:38:26.153 --> 01:38:27.217

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죠.

01:38:27.317 --> 01:38:32.205

반드시와 반듯이는 반듯하다라는
단어에서 왔으면 반듯이로 가고

01:38:32.305 --> 01:38:35.806

그다음에 틀림없이
반드시로 가고요.

01:38:36.965 --> 01:38:38.250

부딪치다, 부딪히다.

01:38:38.350 --> 01:38:39.252

부치다, 붙이다.

01:38:39.352 --> 01:38:41.132

이런 거는 문제 참 잘 나옵니다.

01:38:41.232 --> 01:38:43.157

그래서 여러분이 어휘에
쓰임에 대해서

01:38:43.257 --> 01:38:45.663

여러 예문들을 보시면서
기억하시면 되는데

01:38:45.763 --> 01:38:49.400

주로 이 트 받침 쓰는 경우는
직접적이든 추상적이든

01:38:49.500 --> 01:38:51.196

접촉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

01:38:51.296 --> 01:38:53.490

그래서 그런 개념이
전제하는 거고요.

01:38:53.590 --> 01:38:58.248

나머지는 이 부치다, 위에 경우의 의미가
다양한 데 좀 많이 쓰이거든요.

01:38:58.348 --> 01:39:05.196

이런 것들도 의지하다, 거기 살다
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.

01:39:06.074 --> 01:39:08.101

이건 안 된다.

01:39:08.201 --> 01:39:12.227

알음이라고 하는 건 팔로 한번 앓았을
때 그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?

01:39:12.327 --> 01:39:15.898

알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.

01:39:15.998 --> 01:39:18.024

사람 사이에 아는 일을
이야기하는 거죠.

01:39:18.124 --> 01:39:21.315
그래서 실제로 알음알음 알아가다
이런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.

01:39:21.415 --> 01:39:24.507
얹이라고 하는 것은 애는
그냥 지식을 뜻하는 거죠.

01:39:24.607 --> 01:39:25.983
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.

01:39:26.083 --> 01:39:28.138
그다음에 밥만들 때 안치다.

01:39:28.238 --> 01:39:33.241
얹게 만들다, 얹히다
이런 헛갈릴 거 없어요.

01:39:33.341 --> 01:39:36.298
어떤 경계선을 이야기할
때의 단어, 어름.

01:39:36.398 --> 01:39:39.377
그다음 얼음은 언 것,
ice를 이야기하는 거.

01:39:39.477 --> 01:39:41.900
이따가와 이따가, 이런
거는 좀 잘 쓰셔야 돼요.

01:39:42.000 --> 01:39:44.134
둘 다 분명 시간은 지나가요.

01:39:44.234 --> 01:39:48.415
그런데 이따가는 시간의
경과만 있지만

01:39:48.515 --> 01:39:53.555
있다가는 있었다고 하는 상태성의
지속이 분명 존재하죠.

01:39:53.655 --> 01:39:55.220
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.

01:39:55.320 --> 01:39:56.365
저리다, 절이다.

01:39:56.465 --> 01:39:57.042
이거 틀리면 안 되죠.

01:39:57.142 --> 01:39:59.361
조리다, 졸이다 이거 안 돼.

01:39:59.461 --> 01:40:02.716
조리다는 생선을 조리다,
조림요리를 만들 때.

01:40:02.816 --> 01:40:06.229
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?

01:40:06.329 --> 01:40:09.082
밑에 있는 이 줄이다 같은 경우는

01:40:09.182 --> 01:40:13.623
물을 끓여서 증발시킨다의
의미로 쓸 수 있어요.

01:40:13.723 --> 01:40:16.790
그런데 조림과는 상관이 없고요.

01:40:16.930 --> 01:40:21.604
그다음에 마음 상태 이야기할
때 이렇게 줄이다를 씁니다.

01:40:21.704 --> 01:40:22.980
주리다, 줄이다.

01:40:23.080 --> 01:40:24.013
하노라고 하느라고.

01:40:24.113 --> 01:40:28.700
이거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 더해져
있다는 의미가 더해져 있죠?

01:40:28.800 --> 01:40:33.049
하노라고 한 것인데,
먹노라고 먹었는데 이렇게.

01:40:33.149 --> 01:40:38.286
이거는 시도했다는 것에
대한 이야기만 있고요.

01:40:38.386 --> 01:40:44.580
그다음 -느니보다 연결어미, -는
이보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죠?

01:40:44.680 --> 01:40:50.986
-리만큼, -할 사람 이만큼
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성.

01:40:51.086 --> 01:40:52.462
-공부하리 간다, 목적.

01:40:52.562 --> 01:40:55.536
서울 가려 한다, 의도.

01:40:55.636 --> 01:41:00.575
애는 고쳐쓰기 문제로도 많이
나와서 기억하셔야 돼요.

01:41:00.675 --> 01:41:01.510
로서와 로써.

01:41:01.610 --> 01:41:05.064
-로서는 자격, 그다음
-로써는 수단의 기능.

01:41:05.164 --> 01:41:06.578
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.

01:41:06.678 --> 01:41:10.665

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나
그럼으로의 기능이 똑같습니다.

01:41:10.765 --> 01:41:13.311

그래서 앞에 있는 게
원인과 결과 관계면

01:41:13.411 --> 01:41:15.008

어미로 므로 쓰면 되겠고요.

01:41:15.108 --> 01:41:19.335

그다음에 ~명사형 만들고 으로가
쓰게 되면 앞에 거가 수단.

01:41:19.435 --> 01:41:22.571

그래서 그를 믿는 걸 수단으로 해서

01:41:22.671 --> 01:41:25.437

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,
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

01:41:25.537 --> 01:41:27.206

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.

01:41:27.306 --> 01:41:29.794

그래서 한글 맞춤법
여기까지가 되겠고요.

01:41:29.894 --> 01:41:32.770

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
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.

01:41:32.870 --> 01:41:36.411

그런데 우리가 외워서 푸는
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

01:41:36.511 --> 01:41:38.754

적용하는 구성이고 특히나 마지막.

01:41:38.854 --> 01:41:42.002

우리가 방금 봤던 구별하여
적는다 부분 같은 경우는

01:41:42.102 --> 01:41:43.999

그 당시에 헛갈렸던 것들이라면

01:41:44.099 --> 01:41:46.594

사실 우리가 지금 헛갈려하는
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

01:41:46.694 --> 01:41:52.907

그러니까 맞추다 인지 맞히다
인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.

01:41:53.007 --> 01:41:55.412

그래서 그런 것들은
언제언제 등장합니까?

01:41:55.512 --> 01:41:59.088

고쳐쓰기 문제, 기출 같은 거
풀 때 등장할 수 있습니다.

01:41:59.188 --> 01:42:03.962

어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
기본 문법을 가르쳐서

01:42:04.062 --> 01:42:05.168

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.

01:42:05.268 --> 01:42:08.847

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그때그때
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

01:42:08.947 --> 01:42:09.637

오늘 여기까지고요.

01:42:09.737 --> 01:42:11.567

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?

01:42:11.667 --> 01:42:13.838

표준어 규정에 대해서
공부를 할 건데

01:42:13.938 --> 01:42:19.375

이 표준어 규정 부분에서는 단수표준어,
복수표준어 이 부분은 안 할 거예요.

01:42:19.475 --> 01:42:22.325

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일일이
하나하나 외우는 작업이거든요.

01:42:22.425 --> 01:42:24.017

그런데 그건 제가
가르칠 필요가 없죠.

01:42:24.117 --> 01:42:25.232

그래서 표준 발음법.

01:42:25.332 --> 01:42:29.024

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표준 발음법
부분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.

01:42:29.124 --> 01:42:30.011

수고하셨습니다.